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61호 【루계 제23378호】 주체100(2011)년 3월 2일 (수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의 리상을 활짝 꽃피우자

사설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더 많은 나무를 심자

오늘은 식수절이다. 지금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불타는 애국의 열정을 안고 봄철나무심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다.

지금으로부터 65년전인 주체35(1946)년 3월 2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경애하는 장군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와 함께 모란봉에 오르시여 우리 조국을 풍치수려한 인민의 락원으로 가꾸실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였다. 뜻깊은 이날의 귀중한 가르치심은 우리 나라에서 식수사업의 첫 봉화를 지펴준 력사적계기로 되였다.

백두산3대장군의 뜻과 념원을 받들어 온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를 실현하여 조국산천을 아름다운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려나가려는것이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의지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산이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 나라에서 산림을 잘 조성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면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많은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산림조성사업은 인민의 행복과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숭고한 애국사업이며 만년대계의 대자연개조사업이다. 나무를 대대적으로 심어 울창한 산림을 조성하여야 나라의 자연부원을 늘이고 국토의 면모를 일신할수 있으며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줄수 있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훈대로 나라의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어 후대들에게 물려주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나라의 산림조성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시였다.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사업은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의 끊임없는 강행군현지지도로 하여 더욱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오가산자연보호구와 리원군산림경영소, 원산농업종합대학을 비롯하여 이르시는 곳마다에서 산림조성사업의 중요성과 그 실현을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고 이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신분이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날로 푸르러가는 조국산천의 한그루한그루의 나무들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자욱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오늘 우리 당은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과업을 내세우고 대고조진군을 현명하게 령도하고있다. 당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실현하는데서 산림조성사업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산림이 울창해야 동식물자원이 풍부해지고 경공업발전에 필요한 원료도 우리의 자원으로 원만히 해결할수 있다. 나무가 많아야 큰물에 의한 피해도 막을수 있고 농경지를 보호하여 농업생산에서도 전환을 일으켜나갈수 있다. 한대의 나무라도 더 심고 가꾸는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강성대국건설을 앞당기는 길이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이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숭고한 애국사업, 후대들을 위한 사업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봄철나무심기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

전체 인민이 열렬한 조국애, 향토애를 지니고 나무심기에 주인답게 참가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애국심은 나서자란 조국산천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아끼고 사랑하는데서 표현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자기의 정든 고향과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무 한대라도 더 심고 가꾸기 위하여 애쓰는 법이다.

자기 산천, 자기 향토를 더욱 아름답게 꾸리자, 이것이 우리 당의 의도이다. 우리는 경희극 《산울림》의 주인공들처럼 자기 고향의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하여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누구나 수림화, 원림화가 조국의 래일을 위한 숭고한 사업이라는것을 명심하고 한대의 나무를 심어도 거기에 자기의 깨끗한 량심을 묻어야 한다.

산림조성사업에서 과학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산림조성사업도 하나의 과학이다. 산마다, 지방마다 그리고 한고장에서도 기후와 토양조건이 다른것만큼 같은 나무도 어디에 어떻게 심는가 하는데 따라 나무의 사름률을 높이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것이 결정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적지적수의 원칙에서 나무심기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나무 한대를 심어도 나무의 생물학적특성을 잘 알고 땅다루기와 거름주기를 비롯한 모든 일을 과학기술적요구대로 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철저히 양묘장에서 키운 나무모를 떠다 심도록 하여야 한다. 나무모뜨기와 운반을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하여야 하며 나무를 심을 때에는 해당 지방의 풍치에 어울리게 나무배렬을 옳게 하여야 한다. 넓은 잎나무와 사철 푸른 나무를 배합하여 산림을 조성하여야 한다. 특히 가로수를 심을 때에는 도로의 주변환경에 맞게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선택하여 심어야 한다. 실지 인민생활에 이바지할수 있는 용재림, 섬유림, 기름나무림, 식용열매나무림을 비롯한 나무림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야 한다.

산림과학을 발전시켜야 한다. 산림과학연구기관들에서는 산림조성사업에서의 세계적추세를 잘 알고 나무육종과 산림조성, 산림보호관리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깊이 연구하여 풀어나가야 한다. 산림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환경을 보호하는데도 좋고 경제적가치가 있으며 빨리 자라는 좋은 수종의 나무들을 더 많이 연구개발하여 널리 퍼치도록 하여야 한다.

나무심기를 전군중적으로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한다.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은 어느 한두사람의 힘만으로는 할수 없으며 이 사업에 참가해야 할 사람과 단위가 따로 있는것이 아니다.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무심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울창하게 하고 도시에서는 공원과 유원지, 도로들을 수림화하며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나무심기운동을 활발히 벌려야 한다. 특히 혁명의 수도 평양을 록음이 우거진 세계적인 도시로 더욱 빛내여야 한다. 농촌살림집들의 주변에는 5그루이상의 과일나무를 심어 배나무집, 살구나무집, 감나무집들을 끊임없이 늘여나가야 한다. 나무심기철에 청년동맹조직을 비롯한 근로단체조직들과 기관, 기업소들, 가두인민반할것없이 모두가 떨쳐나서야 한다.

산림조성사업에서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비상히 높여야 한다.

일군들은 열렬한 애국심을 지니고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산림조성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 자기도, 자기 군, 자기 부문, 자기 단위를 본때있게 꾸려나가야 한다. 경원군당위원회의 석길호동무처럼 조국의 래일을 위하여 푸른 숲을 펼치는데 자기의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다 바쳐나가는 일군이 우리 당이 바라는 참다운 혁명의 지휘성원이다.

모든 일군들은 산과 들을 남먼저 밟으며 나무심을 면적과 지대적특성을 구체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조림계획을 현실성있게 과학적으로 세워야 한다. 그리고 이번 식수기간에 나무를 심자면 나무모가 얼마나 필요하고 로력은 얼마나 드는가를 따져보고 조직사업을 짜고들며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군중이 산림조성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당면한 나무심기에만 그치지 말고 전망적인 계획을 세우고 양묘장들을 더 잘 꾸리며 산림조성사업을 근기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높은 애국심을 가지고 봄철나무심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우리 조국산천을 강성대국의 체모에 맞게 더욱 아름답고 풍치수려하게 꾸려나가야 할것이다.

장자산의 두그루 잣나무가 무성한 숲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산림은 나라의 귀중한 자원이며 조국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중요한 밑천입니다.》

오늘 장자산혁명사적지에서는 전화의 불길속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심으신 두그루의 잣나무가 내 조국의 무성하는 잣나무숲과 더불어 푸르러 설레이고있다. 절세위인의 숭고한 조국애를 길이 전하며 거목으로 자란 두그루의 잣나무는 주체39(1950)년 10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성껏 심으신 나무들이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침략자들의 야수적인 폭격으로 온 나라의 산림은 불에 타고 이 나라의 모든 산들은 벌거숭이가 되였다. 전화의 그날 승리한 조국의 래일을 안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심으신 두그루의 잣나무.

력사의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따르는 우리 인민의 마음은 푸르른 잣나무처럼 변함이 없을것이라고, 이 나무가 푸르싱싱 자랄 때 우리 나라는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로 될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진정 그날의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천출위인의 숭고한 모습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갈 한마음을 안고 장자산혁명사적관의 일군들과 강사들은 지난 수십년간 장자산에 천수백평의 나무모밭을 일구고 두그루 잣나무에서 잣씨를 받아 나무모를 키워 온 나라 방방곡곡에 보내주었다.

주체84(1995)년 경사로운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이곳 혁명사적관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두그루 잣나무에 열린 잣송이에서 알알이 고른 많은 량의 잣씨를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올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잣씨들을 모두 나무모로 키워 전국각지에 보내주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지난 기간 이곳 혁명사적관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해마다 많은 잣나무모를 생산하여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를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과 시, 군산림경영소들에 보내주었다.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두그루의 잣나무씨앗으로 생산한 나무모들은 조국의 산들에 깊이 뿌리를 내리였다. 그리고 그 나무모들이 큰 나무들로 자라고 그 거목들에서 또 잣씨들이 생산되여 이 나라의 산발마다에 아득한 잣나무숲을 펼쳐놓았다.

정녕 숲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은 온 나라에 무성한 잣나무숲을 펼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장자산에 두그루 잣나무를 심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조국애를 가슴깊이 새기고 올해 봄철나무심기를 더 잘해나갈 결의에 넘쳐있다.

특파기자 동세웅

보통강에서 준첩 시작

【평양 3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보통강을 더욱 훌륭히 보호관리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1일 준첩선들이 힘찬 동음을 울리며 강바닥을 파내기 시작하였다. 우리 로동계급이 자력으로 만들어낸 여러척의 준첩선과 운반배 등이 3개의 선단으로 무어져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하루 수백㎥의 준첩, 수송능력을 갖춘 선단들의 운영으로 보통강의 감탕과 퇴적물을 제거하고 좋은 수질을 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또한 감탕을 원료로 하는 유기질비료공장이 건설되여 농업증산에 이바지하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수난의 강을 인민의 행복이 넘치는 락원의 강으로 전변시켜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시민들에게 맑은 물이 흐르는 보다 아름다운 보통강을 안겨주시려 필요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평양시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보통강준첩을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과 수도건설구상을 실현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틀어쥐고 그 수행에서 애국적열의를 남김없이 발양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받들고 한결같이 떨쳐나선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집단적혁신을 일으켜 준첩선들을 짧은 기간에 만들어냈다.

보통강관리소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준첩선가동을 위한 전기공사와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기술준비를 끝내고 시운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이들은 준첩시작부터 기세를 올려 많은 감탕을 파냈다.

앞으로 준첩선단이 더 무어져 보통강유원지물길구간에 대한 바닥파기작업이 통이 크게 벌어지게 된다.

앞그루작물씨뿌리기를 적기에

서해지구 농촌들에서

당의 두벌농사방침을 높이 받들고 서해지구 농촌들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앞그루작물심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과 농업지도기관들, 협동농장들에서 당의 방침에 대한 옳은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강하게 내밀어 두벌농사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켜야 합니다.》

각 도당위원회들에서는 도안의 당조직들이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속에 당의 두벌농사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화선식선전선동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도록 하고있다.

평안남도안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인민생활향상대진군에서 승리자의 영예를 더 높이 떨칠 불같은 열의를 안고 밀, 보리씨뿌리기를 다그치고있다. 개천시안의 농장들에서 씨뿌리기를 질적으로 하기 위해 로력조직을 빈틈없이 하고 농업근로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고있다. 숙천, 문덕군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씨뿌리는 적기를 바로 정하고 그날계획을 수행하기 전에는 일손을 놓을수 없다고 하면서 깐지게 일해나가고있다.

평안북도에서도 앞그루작물씨뿌리기를 와닥닥 끝내기 위해 력량을 집중하고있다. 도안의 농장들에서는 포전별, 날자별 밀, 보리씨뿌리기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매일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해나가고있다. 염주, 룡천, 박천군안의 농업근로자들은 씨뿌리기를 짧은 기간에 끝낼 기세드높이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정주시안의 농장일군들은 포전에 나가 지대별, 필지별특성과 농작물의 생물학적특성에 맞게 품종을 배치하고 제철에 씨를 뿌리도록 하고있다. 농업근로자들은 과학농사의 주인된 자각을 안고 앞그루작물심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황해북도안의 농촌들에서도 앞그루작물의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는데 힘을 넣고 밀, 보리씨뿌리기를 질적으로 하고있다. 은파군안의 농장들에서는 경영조건과 토양조건, 재배조건에 따라 해당 지대에 알맞는 씨뿌리기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있다. 황주긴등벌안의 농장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땅다루기를 잘하고 씨뿌리기에 들어가 성과를 거두고있다.

본사기자 정영철

암재발, 전이를 예방치료하는 왁찐 개발

최근 의학과학원 종양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암왁찐을 새로 연구개발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암성질환에 대한 예방치료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암치료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암의 전이를 예방치료하는것이다.

암왁찐은 암환자의 면역계통의 세포들과 인터로이킨, 인터페론 등을 활성화하여 몸에 퍼져있는 암전이조들을 없애버리는 작용을 한다.

일반적으로 암왁찐은 수술하여 떼여낸 암조직으로부터 필요한 물질들을 분리하고 여기에 면역보조제를 첨가하여 만든 생물제품이다.

암왁찐료법은 항암제와는 달리 부작용이 거의 없이 암환자의 생존률을 높이는것으로 알려져있다. 때문에 세계적으로 암환자사망의 기본원인으로 되고있는 암전이조에 대한 치료에서 암왁찐료법이 중요시되고있다.

당의 과학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의학과학원 종양연구소 실장 리일훈동무를 비롯한 암왁찐연구성원들은 지칠줄 모르는 탐구와 열정을 기울여 폐암, 간암, 위암, 유선암 등으로 수술을 받은 사람들속에서 흔히 나타나군 하는 재발, 전이를 예방치료할수 있는 왁찐을 새롭게 연구개발하였다.

이들은 10여년간의 연구과정을 통하여 왁찐치료를 받은 사람들의 생존률을 암수술후 다른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생존률보다 훨씬 더 높이였다. 또한 항암제, 방사선치료에 대한 반응이 약하거나 거의 없는 악성흑색종과 콩팥암에도 왁찐의 예방치료효과가 매우 좋다는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내였다.

현재 해당 부문에서는 치료효과가 뚜렷하면서도 부작용이 없는 암왁찐에 대한 연구성과를 림상실천에 적극 도입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다.

본사기자 오현

인민소비품의 질을 더욱 높여

량강도에서

량강도에서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투쟁이 활기있게 벌어지고있다.

공동사설의 파업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도안의 인민소비품생산자들은 올해에 들어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8월3일인민소비품의 질을 높이고 가지수를 늘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앞으로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을 계속 힘있게 벌려 여러가지 질좋은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하겠습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인민소비품생산자들이 오늘의 보람찬 투쟁에서 한몫하도록 하였다.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도인민위원회일군들은 생산협동조합들과 가내작업반들에 나가 걸린 문제를 풀어주면서 질좋은 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생산자들을 고무해주고있다. 일군들은 8월3일인민소비품전시장을 새로 꾸리는 동시에 전시회 및 품평회 등을 의의있게 조직하여 소비품생산이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되도록 하고있다.

혜산시에서는 가내작업반들에서 근로자들의 높아지는 수요에 맞게 계절옷들과 어린이옷, 일용잡화 등 새롭고 특색있는 갖가지 8월3일인민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고있다. 또한 시직매점을 새맛이 나게 잘 꾸려놓고 여기에 값눅고 쓸모있는 인민소비품을 내놓게 하였다.

삼지연군에서 생산한 8월3일인민소비품에 대한 인기가 대단하다. 군의 일군들과 생산자들은 국가의 큰 투자없이 자기 고장에 흔한 원료로 특색있고 질좋은 인민소비품을 생산하여 직매점에 내놓아 군에 오는 많은 답사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있다. 그리고 8월3일인민소비품전시회를 자주 조직하여 생산자들의 열의를 북돋아주고 그들의 시야를 더욱 넓혀주고있다.

보천군과 운흥군에서도 다양한 소비품들을 생산하여 직매점들에 내놓음으로써 군안의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있다.

이곳 군들에서는 생산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주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 소비품의 질을 높이도록 하고있다.

도에서는 생산단위별로 경쟁을 벌리는 방법으로 인민소비품생산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특파기자 전철주

인민경제 중요부문에서 2월계획 빛나게 수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공업의 잠재력을 최대한 동원리용하여 생산을 정상화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뜻깊은 2월을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빛내이기 위하여 중요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김철의 신념, 김철의 본때, 김철의 실천력으로 대고조의 승리를 안아오기 위한 견인불발의 투쟁속에 석탄공업, 기계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높이 세운 2월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석탄공업부문에서

각지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증산돌격투쟁을 과감하게 벌려 2월 석탄생산계획수행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계획수행기간 석탄공업성에서는 서부지구 탄전들과 북부지구 탄전들에서 굴진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석탄증산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생산능력확장공사와 운반계통의 현대화공사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도록 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를 받은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와 2.8직동청년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함으로써 1월에 이어 2월에도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순천, 덕천, 북창, 구장, 강동, 천내, 경원, 온성, 명천, 함남지구의 탄광들을 비롯하여 석탄공업부문의 많은 탄광들에서 높은 석탄생산성과로 뜻깊은 2월을 빛나게 장식하였다. 나라의 석탄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2.8직동청년탄광과 천성청년탄광, 제남탄광과 남양탄광, 룡등탄광, 룡문탄광, 인포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화력발전소들과 금속 및 화학공장들, 경공업공장들에 필요한 석탄을 책임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하여 드세찬 공격전을 벌리였다.

또한 북부지구의 학포탄광과 풍인탄광, 고건원탄광, 룡북청년탄광, 석성탄광과 함남지구의 고원탄광, 운곡탄광을 비롯한 많은 탄광들에서도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뚫고 2월 석탄생산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각지 탄광기계공장을 비롯한 석탄공업부문의 보장단위 로동계급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탄광들에 더 많은 설비부속품과 소공구를 생산보장하였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총공격전의 앞장에서 진격로를 열어나가는 석탄공업부문의 일군들과 탄부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석탄생산성과는 나날이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강명일

기계공업부문에서

기계공업성아래 공장, 기업소들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총공격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성적인 2월 공업생산액계획과 중요지표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룡성기계련합기업소,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락원기계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려 계획수행의 앞장에 섰다. 지난 1월말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를 또다시 받은 룡성기계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흥남가스화 1계렬대상설비생산을 하루빨리 결속하기 위한 결사적인 투쟁을 벌려 수십대의 탄산가스흡착탑을 조립하였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서는 희천발전소건설장에 보낼 발전설비생산에서 새 기적, 새 기록을 세우기 위한 집단적혁신의 불바람을 일으켜 희천1호발전소 마지막발전기생산을 결속하였다. 락원기계련합기업소에서도 계획된 유압식굴착기생산을 끝내였다.

전기기계공업관리국, 룡전기계공업관리국아래 공장들에서 중요대상설비와 영농부속품생산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평양326전선공장의 로동계급이 소재부문의 련속공정들에 만가동을 거는데 힘을 넣어 2월에도 중요지표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였다. 경성애자공장에서 희천발전소건설장에 보내줄 현수애자생산계획을, 평양전동기공장에서는 흥남가스화대상건설장에 보내줄 전동기생산계획을 수행한것을 비롯하여 안주절연물공장, 대동강전기공장, 성천강전기공장들이 계획수행에서 모범을 보이였다.

룡전기계공업관리국아래 금성뜨락또르공장, 희천정밀기계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농업부문에 보내줄 뜨락또르부속품생산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평양베아링공장, 량책베아링공장의 생산자들도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탐구동원하면서 증산의 동음을 힘차게 울려 석탄공업부문과 농업부문 등 중요대상들에 질좋은 각종 베아링들을 생산공급하였다.

본사기자 리병춘

위대한 혼연일체에 우리의 승리가 있고 미래가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대고조진군의 불길속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위대한 승리가 끊임없이 이룩되고있다. 선군조선의 위력을 과시하는 자랑찬 성과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긍지높이 여기는것은 령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가 비할바없이 강화되고 있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의 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천만군민의 힘을 믿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투쟁을 이끌고계시며 우리 인민들은 장군님께 모든 운명을 의탁하고 혁명의 천만리길을 헤쳐나가고있다. 혼연일체에 조선의 참모습이 있고 힘의 원천이 있다. 선군조선의 미래를 믿는다는것은 우리의 혼연일체의 위력을 믿는다는것이다.

우리는 대고조진군의 불길속에서 더욱 강화된 일심단결의 힘으로 강성대국의 찬란한 래일을 앞당겨올것이다.

1

오늘의 시기는 력사적으로 공고발전되여온 우리의 혼연일체가 최상의 경지에 이른 벅찬 시기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의 력사에서 오늘처럼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때는 일찌기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 두번째 10년대의 진군을 다그치고있다. 오늘의 높은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 혁명은 숭고한 단결의 력사를 수놓아왔다. 기나긴 수십년세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언제나 우리 인민과 함께 계시였고 장군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총을 쥔 우리 병사들과 평범한 로동자, 농민들, 온 나라 인민이 자리잡고있었다. 령도자와 인민이 하나의 혈맥으로 굳게 뭉친 이 혼연일체가 강성대국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기 위한 오늘의 진군속에서 더욱 승화되고있는것이다. 우리 인민들에게 천만가지 행복을 다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열망은 더욱 강렬해지고 장군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흠모심은 백배, 천배로 높아지고있다. 우리 인민의 장구한 혁명투쟁과정을 돌이켜볼 때 오늘처럼 혼연일체의 위력이 높이 떨쳐진 때는 없었다.

오늘 우리의 혼연일체가 높은 경지에 이를수 있게 된것은 거창한 규모에서 벌어지고있는 혁명적대고조진군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단결은 혁명의 거세찬 폭풍우속에서 공고화된다. 간고하고도 보람찬 혁명실천은 사람들을 단련시키는 학교이며 단결의 위력을 검증하는 시금석이다. 력사는 일시적인 충동이나 리론적귀결에 의해 이룩된 단결은 시련앞에서 쉽게 무너지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혁명적대고조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킬데 대한 당과 수령의 호소를 받들고 인민대중이 산악같이 떨쳐날 때 일어나게 된다. 령도자와 인민이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한덩어리가 되여 전진하는 대고조시기와 같이 당과 수령을 따르려는 인민들의 마음이 활화산처럼 타번지는 때는 없다. 령도자와 인민이 사상의지적으로나 감정정서적으로 더욱더 화합되고 친밀해지는 시기가 바로 혁명적대고조시기이다.

력사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혁명적대고조시기에는 치렬한 계급투쟁이 동반된다. 혁명의 전진을 가로막으려는 원쑤들의 책동을 대진군의 북소리로 짓부시고 온갖 불건전한 사상요소들을 불사르는 사상전의 불길속에서 대고조가 일어난다. 이것은 대고조발생발전의 공식이며 법칙이다. 대고조과정에 사람들의 정신상태는 더욱더 순결해지고 대오의 정예화가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된다. 장엄한 혁명적대고조시기야말로 단결의 력사가운데서도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격동적인 서사시가 엮어지는 의의깊은 시기이다.

우리 혁명에서 지난 천리마대고조시기는 혼연일체의 빛나는 귀감이 창조된 년대기로 수놓아져있다. 바로 이 력사적시기에 태성할머니와 같은 수령의 절대적인 지지자들, 진응원, 길확실과 같은 충직한 수령옹위전사들이 수많이 배출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은 인민을 굳게 믿고 인민은 우리 수령님만을 끝까지 따른 혼연일체의 이야기는 오늘도 사람들을 끝없이 감동시키고있다.

위대한 단결의 력사는 오늘의 21세기 진군에서 또다시 재현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력사의 땅 강선을 찾으시여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지펴주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강성대국건설에서는 커다란 변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김철과 성강, 함흥과 강계를 비롯한 온 나라 곳곳에서 창조된 기적들에는 령도자와 인민이 한덩어리가 되여 싸우는 전설같은 사연이 깃들어있다. 령도자없이는 순간도 살수 없는 인민, 인민이 없으면 조국도 혁명도 있을수 없다는 확고한 신조를 지닌 령도자가 운명적으로 결합된 우리의 혼연일체의 위력이 남김없이 과시되고있다. 새로운 기적과 위훈이 다계단으로 일어나고있듯이 우리의 혼연일체가 다계단으로 승화되여나가고있는것이 오늘의 대고조시대이다.

오늘 우리의 혼연일체가 숭고한 경지에 오를수 있은것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인민사랑의 세계가 한없이 위대한데 있다.

혼연일체의 출발점은 령도자의 인민관에 있다. 인민에 대한 관점을 최고의 높이에 세우고 인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령도자만이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법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리념, 리상과 포부, 투쟁원칙과 생활신조는 오로지 인민을 위한것으로 일관되여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만복을 안겨주기 위한 투쟁으로 혁명활동의 전 로정을 빛내여오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세계가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진군속에서 최절정에 이르고있는것이다.

오늘의 대고조진군은 인민생활향상을 최대의 중대사로, 최고의 투쟁목표로 내세우고 끝장을 볼 때까지 해결해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한 의지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대고조진군의 구호도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이며 그 주공전선도 경공업이다. 그리하여 오늘의 혁명적대고조가 인민생활대고조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자랑스럽게 불리우게 된것이다.

인민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은 인민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다 돌보시는 전면적이고도 구체적인것이다. 인민생활향상대진군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의 손길은 경공업의 현대화, 과학화를 위한 투쟁에도,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에도 미치고있고 도처에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봉사기지들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도 어리여있다. 식료품의 질과 가지수로부터 살림집의 구조와 가구, 지어 녀성들의 머리빈침과 양말에 이르기까지 인민생활과 관련된 문제라면 사소한것도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해결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세계는 참으로 숭고하다. 우리 인민은 지금 생활의 매 순간마다, 매 계기마다 끊임없이 와닿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정을 뜨겁게 느끼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인민사랑의 세계는 조국과 인민의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려는 숭고한 사명감으로 일관되여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모든 사업의 평가기준을 오늘의 세대뿐아니라 후대들도 덕을 볼수 있는가,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수 있는가 하는데 두고계신다. 하나의 공장을 건설하고 하나의 축산기지, 과수기지를 일떠세워도 최첨단수준에서 일떠세우며 남들에게 떳떳이 자랑할수 있는 최상의것을 후대들에게 넘겨주자는것이 우리 장군님의 확고한 의지이다.

우리 인민은 지금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원대한 애국애민의 설계도에서 더없이 휘황한 앞날을 그려보고있다. 아무리 어려운 시련과 난관이 앞을 가로막아도 위대한 장군님과 끝까지 운명을 함께 하려는 우리 인민의 신념은 나날이 굳세여지고있다. 령도자의 인민관, 후대관이 초석이 되고 령도자의 인민사랑의 세계가 열원이 되는 우리의 위대한 혼연일체와 같이 굳센 단결은 이 세상에 없다.

오늘 우리의 혼연일체가 최상의 경지에 오를수 있은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현지지도에 원천을 두고있다.

혼연일체란 말그대로 한몸이 되고 한덩어리가 된다는것이다. 혼연일체라는 말은 단결이라는 말보다 단수가 더 높은 말로 쓰인다. 이런 불패의 통일체는 결코 탁상에서나 회의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오로지 대중의 육성은 물론 숨결과 눈빛, 표정과 몸가짐까지도 직접 알수 있는 인민들과의 친근한 접촉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법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는 산 현실에서 인민대중과 호흡을 함께 하면서 혁명을 이끄는 독특한 령도방식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걸린 문제를 풀기 위한 방도도 가르쳐주시며 그들을 새로운 위훈에로 고무하고계신다. 한평생 인민행렬차를 타고 오신 어버이수령님 그대로 언제나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여 그들과 고락을 함께 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는 우리의 혼연일체를 가장 높은 경지에 올려세운 원동력으로 되고있는것이다.

대고조시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는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초강도강행군으로 일관되여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진군을 이끄시는 전기간 한시도 쉬지 않으시고 달리는 렬차와 야전차에서 침식을 이어가시면서 온 나라 방방곡곡을 찾고 또 찾으시였다. 어제는 북방의 대야금기지를 찾으시여 로동계급의 심장에 우리 식 주체철생산의 불씨를 심어주시고 오늘은 대규모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여 군인건설자들의 투쟁을 뜨겁게 고무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고는 그 무엇으로써도 헤아릴수 없다. 우리 인민은 매일과 같이 신문과 텔레비죤을 통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끊임없이 계속되는 혁명활동소식을 보고 들으면서 큰 힘을 얻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을 뵈올 때마다 장군님의 크나큰 로고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절감하고 장군님의 강행군보폭에 자신들의 보폭을 따라세우려는 결의에 넘쳐있는것이 우리 인민의 모습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행군현지지도소식은 우리의 혼연일체대오에 넘쳐나는 열과 정을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고있다.

대고조진군과정에 경애하는 장군님과 우리 인민은 한시도 떨어져서는 살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로 더욱 굳게 결합되였다. 대고조진군에서 이룩된 사회경제적변혁이 아무리 크다고 한들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한 전취물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2

혁명운동의 오랜 력사를 돌이켜보면 지도와 대중과의 관계는 언제나 사활적인 문제로 제기되여왔다. 지도와 대중이 잘 결합된 혁명은 실패와 좌절을 모르고 승리의 길을 개척하였다.

우리의 혼연일체는 로동계급의 혁명투쟁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단결이다. 단결의 형성과 발전의 력사에 있어서, 단결의 사상적기초와 조직적공고성에 있어서, 지도와 대중의 결합방식과 그 양상에 있어서 우리의 혼연일체는 자기의 고유한 특징을 지니고있다. 우리 혁명대오에서는 령도자와 인민이 사상과 정으로 뭉치고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결합되고있으며 어버이와 자식, 스승과 제자와 같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있다. 오늘의 대고조시대는 이 혈연의 관계가 최고의 높이에 이르게 된 참으로 보람찬 시대이다.

오늘의 대고조시대에 우리의 혼연일체는 령도자와 인민이 정과 정으로 맺어진 가장 위력한 혼연일체로 더욱 강화발전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당을 무한히 신뢰하고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있으며 우리 당은 인민대중과 혈연적으로 련결되고 혼연일체를 이루고있습니다.》

령도자와 인민을 떨래야 떨수 없는 전일체로 굳게 결합시키는 힘의 원천은 정이다. 인민들이 그 어떤 관직을 따르는것이 아니라 령도자의 위대성에 끝없이 매혹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혼연일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최상의 단결이다.

인간의 정은 믿음에 귀착된다. 믿음이 있으면 정이 생기고 정이 있으면 사상이 통하고 뜻이 통하게 된다.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우리 당은 비날론로동계급의 정신력을 믿는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현대적인 비날론공장을 일떠세워 주체섬유폭포를 안아왔고 룡성기계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오늘의 대고조진군의 전렬에 설것을 바라시는 장군님의 기대를 심장깊이 새기고 최첨단기술로 장비된 선군주철공장과 선군압축기직장을 훌륭히 일떠세웠다. 당에 충직한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있는한 최첨단돌파도, 대고조의 승리도 문제없다는 장군님의 신념이 이르는 곳마다에서 세상을 들었다놓은 기적이 창조되게 한 근본원천으로 되고있다.

오늘 우리 조국땅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과 뜨거운 정으로 맺어진 고장들이 나날이 늘어나고있다. 지난 고난의 행군시기 자강도가 경애하는 장군님에게 정든 고장이 된것처럼 오늘은 온 나라 이르는 곳마다에 장군님께 기쁨드린 단위와 고장들이 수없이 생겨나고있다.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을 빛나게 실현하고 장군님 오실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장군님께서는 당정책을 결사관철하는 사람들이 보고싶으시여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숭고한 화폭이 펼쳐지는 여기에 우리의 혼연일체의 참모습이 있다.

지금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우리의 혼연일체에 파렬구를 내기 위하여 갖은 책동을 다하고있다. 우리의 혼연일체는 원쑤들의 책동에 의해 쉽게 허물어질 사상루각과 같은것이 아니다. 사랑과 믿음, 매혹과 흠모라는 인간의 가장 순결하고 고상한 사상감정으로 뭉쳐진 혈연의 관계는 그 어떤 외적인 침식작용에 의해 절대로 끊어질수 없다. 우리 혼연일체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날뛰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파산을 면치 못할것이다.

대고조시대에 우리의 혼연일체는 령도자와 인민이 끝까지 생사운명을 함께 하는 고상한 륜리가 지배하는 불패의 통일체로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수령과 인민, 령도자와 전사사이의 관계는 동지적관계가운데서도 가장 숭고한 관계이며 모든 인간관계를 초월하는 최고의 관계이다. 여기에서 작용하는 도덕의리와 륜리도 마땅히 최고의것으로 되여야 한다.

령도자와 인민사이에 고상한 륜리가 흐르는 혁명에서는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령도자와 인민이 생사운명을 같이해나가게 된다. 령도자는 인민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민은 령도자를 한목숨바쳐 결사옹위하며 령도자와 인민이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눌 때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적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말할수 있다.

오늘의 대고조시대에 수령결사옹위는 우리 인민의 생명으로, 생활로 되고있다. 희천발전소건설에서 이룩되고있는 놀라운 성과에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하려는 우리 인민군전사들의 절대불변의 신념이 비껴있고 주체철생산체계를 완성하고 강철생산에서 획기적인 비약을 이룩한 김철의 기적에도 강철로 장군님을 받들려는 우리 로동계급의 철석의 의지가 깃들어있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옹위하는 길에서는 조건과 난관을 문제로 삼지 않는다. 위대한 장군님께 다진 맹세를 실천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오직 《무조건》, 《철저히》, 《결사》라는 말만이 있어야 한다는것이 대고조시대 우리 인민의 확고한 의지이다. 바로 여기에 령도자에 대한 우리 인민의 륜리도덕관의 높이가 있다.

우리의 혼연일체는 세대가 바뀌여도 변함없이 계승되는 영원한 통일체이다.

혼연일체의 공고성과 위력은 세월의 흐름과 세대의 교체에도 변하지 않는 영원성에 있다. 혁명이 전진한다는것은 혼연일체의 대가 굳건히 이어진다는것을 말한다.

우리의 혼연일체는 하루아침에 마련된것이 아니다. 우리의 단결의 전통은 항일의 피바다, 불바다를 헤치며 형성되였으며 새 사회건설과 조국해방전쟁, 사회주의대건설과 고난의 행군, 강성대국건설대전을 비롯한 투쟁의 나날에 계승되고 더욱 공고해졌다. 예로부터 시간의 흐름은 모든것을 변화시킨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혼연일체는 시간의 흐름과 세월의 변화를 초월하여 나날이 더욱 굳건해지고있다.

혼연일체가 대를 이어 계승되자면 혁명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새 세대가 튼튼히 준비되여야 한다.

오늘 혁명적대고조진군의 앞장에 선 우리 청년들의 사상정신상태는 매우 좋다. 우리 청년들은 혁명의 총대로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 전초선에서 값높은 청춘을 바치는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여기고있으며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를 비롯한 대고조격전장들에 달려나가 위훈의 자욱을 새겨가고있다. 조국의 큰 짐도 모두 걸머지고 최첨단의 패권도 다 쥐겠다는것이 선군시대 우리 청년들의 포부이며 열망이다. 인공지구위성발사와 핵시험에서의 성공, 최첨단CNC기술개발을 비롯하여 선군조선에서 이룩되고있는 자랑찬 성과들마다에는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현대과학기술에 정통한 우리 청년들의 슬기와 용맹이 힘있게 나래치고있다. 당과 수령의 품속에서 자라난 건전하고 혁명적인 청년들의 대부대가 있기에 우리의 일심단결의 대가 굳건히 이어지고 그 위력이 백배해지고있는것이다.

오늘 우리 혁명은 위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있다.

올해 공동사설에서는 당대표자회정신을 받들고 선군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당건설과 활동, 혁명과 건설을 힘차게 다그칠데 대하여 호소하였다.

당대표자회정신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을 변함없이 옹위하며 우리의 혼연일체를 백방으로 다져나가자는것이다. 조선혁명의 최대의 전취물인 위대한 혼연일체를 눈동자와 같이 귀중히 여기고 끝없이 빛내여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지는 더욱더 굳세여지고있다. 우리는 당대표자회정신의 요구대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우리 혁명대오를 령도자와 생사운명을 끝까지 같이하는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로, 령도자의 결심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결사관철의 대오로 튼튼히 꾸려나갈것이다.

혼연일체는 우리 식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필승의 보검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갈것이다.

박 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알좌자이르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대통령

아브델아지즈 부떼플리까각하

나는 생일을 맞는 당신에게 충심으로 되는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당신이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할것과 나라의 안정과 발전, 번영을 위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축원하면서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0(2011)년 3월 1일 평 양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조국애를 가슴뜨겁게 새기고있다.
—4월15일소년백화원에서— 리진명 찍음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에서

보리뒤그루로 심게 하신 콩

주체57(1968)년 5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어느 한 농장의 두벌농사포전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뒤그루로 무엇을 심으려 하는가고 물으시였다.

조를 심으려 한다는 일군들의 대답을 들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보리뒤그루로 조를 심지 말고 콩을 심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수확고는 낮지만 생육기일이 짧은 조를 심으려고 생각했던 일군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왜 보리뒤그루로 콩을 심도록 하시였는지 그 의도를 다는 알수 없었다.

그해 8월 또다시 농장의 포전에 나오시여 가지마다 콩꼬투리가 주렁주렁 달린 콩밭을 만족한 눈길로 바라보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정보당 몇t이나 나올것 같은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일군들은 그이께 예상수확고를 말씀드리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콩을 정보당 그렇게만 내면 우리 나라에서 최고이라고, 그만한 콩이면 우유 수십t과 맞먹는다고 하시면서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방목지가 제한된 우리 나라에서는 젖소를 길러 우유 수십t을 생산하는것보다 콩을 심어 정보당 그이상 내는것이 경제적으로도 더 효과적이라고, 지금 당에서는 인민들에게 공급할 기름문제와 어린이들에게 먹일 콩국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때에야 비로소 보리뒤그루로 조가 아니라 콩을 심게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깊은 의도를 알게 된 일군들은 눈굽을 적시였다.

몸소 세워주신 과학기술지식보급대책

주체63(1974)년 1월 어느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전국농업대회를 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대회에서 농민들을 과학기술지식으로 무장시키지 않고서는 농사를 제대로 지을수 없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공부할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계속하여 농업과학기술지식보급실은 따로 지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있는 선전실을 농민들이 과학기술을 학습하는 장소로 꾸리는것이 좋겠다고, 그 이름은 농업기술지식보급실이라고 해도 좋고 선전실이라는 이름을 그냥 붙여서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이라고 하여도 좋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거기에 농장의 토양표본, 여러가지 농작물의 표본, 농장의 생산도표, 뜨락또르구조도같은것을 만들어놓으며 농업과학기술도서도 많이 갖추어놓을데 대하여서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또한 도에 있는 농업대학에서는 농촌에 나가 순회강연도 하고 강습도 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몸소 대책까지 세워주시였다.

그후 우리 농민들은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에 의하여 꾸려진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에서 자신들을 주체농법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농사를 더 잘 짓게 되였다.

집짐승먹이문제를 푸시려고

주체78(1989)년 9월초 어느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삼석구역의 한 농장에 나오시여 몸소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하시였다.

일군들에게 이 사업의 목적에 대하여 알려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들을 밭으로 이끄시였다. 그곳은 비름밭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최뚝에 올라서시여 비름을 한대 꺾어드시고 집짐승먹이풀로서의 우월성에 대하여 하나하나 설명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이런 좋은 풀을 왜 심지 않겠는가, 올해에 이 농장에 비름을 심게 하고 돼지에게 먹여보았는데 아주 잘 먹고 또 살도 찌더라고 하시며 비름을 많이 심어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비름을 많이 심으면 집짐승먹이문제를 풀수 있다고 하시며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그것을 많이 심을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이날 일군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고기를 먹이시려고 비름에 대한 자료를 깊이 연구하시며 그것의 좋은 점과 심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가르쳐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헌신의 로고를 가슴뜨겁게 느끼면서 그이의 높은 뜻을 받들어갈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기자 림정호

하나의 미술작품을 보시고도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새 세대들은 혁명선렬들의 투쟁정신을 변함없이 계승해나가야 한다. 이것은 혁명투쟁사가 새겨준 고귀한 진리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새 세대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청년들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체86(1997)년 4월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만수대창작사사업을 현지지도하실 때의 일이다.

이날 전시장을 돌아보시던 그이께서는 한폭의 크지 않은 그림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조선화 《포항의 8용사들》이였다.

검붉은 포연이 흩날리는 고지, 최후결전의 순간 적들에게 한치의 땅도 내여주지 말자고 웨치며 적진으로 육박하는 8명의 인민군용사들, 그들앞에 나붓기는 포연에 그슬리고 파편에 찢긴 공화국기발…

그야말로 가렬처절하였던 전장이 생동하게 형상되여있었다.

근엄하신 안광으로 그림을 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선화 《포항의 8용사들》은 교양적의의가 있는 훌륭한 작품이라고, 아마 새 세대들은 조국해방전쟁시기 포항의 용사들의 위훈을 잘 모를것이라고 하시며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다.

그림에 형상된 포항의 8용사들은 조국해방전쟁시기 포항계선의 한 무명고지와 그에 린접한 고지를 끝까지 사수하여 싸운 영웅전사들이였다.

그들은 적은 력량으로 적의 대병력과 용감하게 맞서싸워 영웅적 우리 인민군대의 불굴의 기상과 육탄정신을 세상에 시위하였으며 원쑤들을 전률케 하였다.

이어 작품이 가지는 교양적의의에 대하여 거듭 강조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미술작품들을 각급 학교들과 대학강당같은데도 많이 걸어놓고 학생들을 교양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학생들이 미술작품들을 늘 보면서 영웅적투쟁모습들을 눈에 익혀두면 앞으로 그들이 전세대 사람들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용감하게 잘 싸울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하나의 미술작품을 보시고도 그림이 담고있는 커다란 인식교양적가치를 순간에 헤아려보시며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고귀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솟구치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청년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앞날의 역군들로 키우시기 위하여 끊임없는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한 령도의 손길이 있어 오늘 우리 청년들은 포항의 8용사들처럼 억세게 자라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김철혁

수종이 좋은 나무를 많이 심어 온 나라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

위대한 령도의 손길아래 펼쳐진 전변의 새 모습

어버이수령님께서 산림조성사업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 때로부터 수십년세월이 흘렀다. 그 나날 우리 조국은 산림조성사업에서 얼마나 거창한 전변의 력사를 수놓으며 전진하였는가.

해마다 산림조성사업이 힘있게 벌어져 조국의 산과 들에는 수종이 좋은 나무들이 푸른 숲을 이루었고 가는 곳마다에 나무모생산기지들이 훌륭히 꾸려졌다. 어디 그뿐인가. 집집마다 과일나무들이 심어져 살구동네, 추리동네들이 늘어나고있다.

참으로 벅찬 현실이다. 이 자랑스러운 모습은 위대한 수령님의 부강조국건설념원을 이 땅우에 활짝 꽃피워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산에 나무를 많이 심어 울창한 산림을 조성하여야 나라의 자연부원을 늘이고 국토의 면모를 일신할수 있으며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줄수 있습니다.》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중요한 성과는 나무모생산을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꾸려진것이다.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

이 놀라운 현실앞에서 사람들의 가슴은 뜨겁게 젖어들고있다. 조국강산을 푸른 숲 우거진 인민의 락원으로 꾸려주시기 위해 우리 장군님 걸으신 길은 그 얼마였고 새날을 맞으시며 산림조성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신 날과 달은 또 얼마였던가.

나무모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킬수 있게 된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에 불멸의 자욱을 새기신 경애하는 장군님, 양묘장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시고도 그 성과를 그대로 국토환경보호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안겨주신 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이 있어 나무모생산을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된것이다.

갖가지 나무들이 자라는 포전들과 정신이 번쩍 드는 건물들, 궁륭식으로 된 나무모온실들…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속에 멋들어지게 꾸려진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식물원에 오지 않았는가 하고 자기 눈을 의심한다. 이렇게 훌륭히 꾸려진 양묘장에서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과 많은 새 품종의 나무모들이 키워져 온 나라에 퍼졌으니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어찌 중앙양묘장뿐이랴. 나무모 한그루라도 더 키우기 위해 애쓴 연탄군산림경영소 종업원들은 앞선 나무모생산방법을 받아들여 군안의 산들을 푸르게 하였다. 동림군을 비롯한 여러 군들에서도 양묘장을 잘 꾸려놓고 많은 나무모를 생산하여 해마다 심고있다.

나날이 푸른 숲으로 변모되고있는 조국의 산과 들의 자랑은 또 얼마나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있는것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오가산자연보호구!

잣나무, 전나무, 피나무, 가문비나무 등 여러 수종들로 혼성림을 이룬 오가산자연보호구는 끝간데없이 펼쳐진 수림의 바다와 수백년이상 자란 진귀한 천연기념물들을 안고있어 나라의 귀중한 재부의 하나로 되고있다. 여름이면 푸른 숲이 설레이고 가을이면 갖가지 산열매들이 주렁지는 모습은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조국의 아름다움을 한껏 느끼게 하고있다.

산들에 숲이 펼쳐진 선천군도 변모된 모습을 자랑하고있다. 종자를 채취하고 나무모를 길러 한그루한그루 심은 나무들이 오늘은 숲을 이루어 이 고장 사람들에게 덕을 주고있다.

어디 이뿐인가. 왕밤나무림을 가지고있는 금야군과 잣나무림을 펼친 린산군을 비롯하여 조국의 어디를 가나 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조국의 산과 들에 펼쳐진 자랑찬 현실을 어찌 다 말할수 있겠는가.

우리 당이 지펴준 산림조성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되고있는 조국의 가슴벅찬 현실, 정녕 그것은 우리 조국을 사회주의 지상락원으로 꾸려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과 크나큰 은정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인것이다. 조국의 자랑스러운 전변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사람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과 그리움으로 가슴설레이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한 나날을 긍지높이 돌이켜보는 각지 근로자들은 올해 산림조성사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결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윤용호

수림화, 원림화의 자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산림은 나라의 귀중한 자원이며 토지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가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애국의 마음에 의해 가는 곳마다에 양묘장들이 훌륭히 일떠서고 무성한 숲이 펼쳐지고있다.

덕을 보는 산림

덕천시의 산들에는 창성이깔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나무들이 무성한 숲을 이루고있다. 그 면적은 대단하다. 시안의 근로자들은 지금 그 덕을 크게 보고있다.

탄광들에서는 동발나무를 해결하여 석탄생산을 늘이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협동농장들의 영농자재는 물론 건설에 필요한 자재들도 해결하고있으니 이 얼마나 좋은가. 이것은 산림조성사업을 힘있게 내밀데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시안의 근로자들이 이악하게 노력한 결과에 이룩된 성과이다.

평원군, 박천군을 비롯한 많은 군들에서도 수종이 좋은 나무를 많이 심어 풍치를 돋구고 땔감도 해결하고있다.

나무모기르기를 잘하여

나무모기르기는 산림조성의 첫 공정이라고 할수 있다. 최근년간 각지 근로자들은 애국의 한마음안고 떨쳐나 나무모생산을 늘일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려놓았다.

정평군산림경영소 률성양묘작업반에서는 가지삽목에 의한 나무모생산방법을 받아들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작업반에서는 회전식분무장치를 리용하여 나무모생산량을 이전에 비해 훨씬 늘이였다. 작업반원들이 가지삽목에 의한 방법으로 생산한 수삼나무모, 창성이깔나무모 등 여러 수종의 나무모들이 군안의 산들에 뿌리를 내렸다.

순안구역에서도 앞선 나무모기르기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그 생산량을 늘이고있다.

늘어나는 과일나무동네

언제인가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집집마다 살구나무들이 심어져있는 함주군 운동리마을을 보시고 못내 기뻐하시면서 농촌살림집들에 과일나무들을 많이 심을데 대하여 다시금 가르쳐주시였다.

그리하여 각지 농촌의 많은 살림집들에 과일나무들이 심어져 봄이면 갖가지 꽃들이 만발하고 가을이면 탐스러운 과일들이 주렁지는 과일나무동네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과 룡천군 장산협동농장, 태천군 은흥협동농장 살림집들에 과일나무들이 심어졌다.

안변군과 북청군을 비롯한 많은 군들의 근로자들도 살림집들에 과일나무를 심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렸다. 최근년간에 전국적으로 많은 협동농장마을들이 과일나무동네로 전변되였다.

본사기자 김성일

수 필 애 국 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애국자란 칭호는 조국과 인민이 자기의 훌륭한 아들딸들에게 주는 값높은 칭호입니다.》

얼마전 내가 취재길에서 벽성군의 산들을 돌아보던 때의 일이였다.

수십년 자란 여러 수종의 나무들이 빼곡이 들어찬 산림은 볼수록 흐뭇하였다.

과연 무슨 힘이 이런 현실을 낳게 하였는가고 묻는 나에게 군책임일군은 수십년을 하루와 같이 푸른 숲에 자기의 땀을 바친 산림부문의 한 일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나서 뜨겁게 말하였다.

《참된 애국자만이 해놓을수 있는 일입니다.》

참된 애국자!

나는 달아오르는 가슴에 애국자라는 단어를 새겨보았다.

사람들은 흔히 애국자라고 하면 조국을 지켜 자기의 목숨을 서슴없이 바친 유명무명의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빼앗긴 조국을 찾기 위해 눈보라만리길을 헤쳐온 항일혁명투사들,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여 적의 화구를 막은 인민군용사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였는가.

이런 사람들속에는 푸른 숲을 위해 10년, 20년, 아니 한생을 고스란히 바친 사람들도 있다. 누가 알아주건말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향땅을 아름답게 꾸리고 조국의 산과 들을 더욱 푸르게 하기 위해 헌신의 길을 걷고걸은 이런 사람들에 의하여 가는 곳마다 사회주의선경이 펼쳐질수 있은것이다.

몇해전 나무모생산을 잘하고있는 리원군산림경영소 양묘직장을 찾으시였을 때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이 되새겨졌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10년, 수십년이 지나야 덕을 볼수 있는 이런 일은 조국의 번영과 후대들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을 깡그리 바치는 참된 애국자가 아니고서는 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산림경영소종업원들의 고결한 애국정신을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은 종업원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 한몸이 그대로 푸른 숲이 되여 고향땅을 꽃피우고싶었습니다.》

한생을 다 바쳐 내 나라, 내 조국을 받들려는 뜨거운 심장을 지닌 사람들만이 할수 있는 말이였다.

나는 생각이 깊어졌다. 많은 나무를 심어 고향을 훌륭히 꽃피운 대홍단군의 근로자들, 수종이 좋은 나무를 더 많이 심어 조국의 산과 들을 푸르게 하고있는 옹진군의 근로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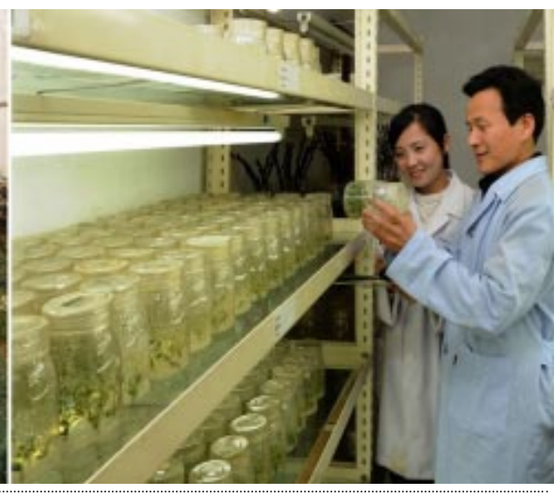
그들은 나서자란 고향도, 나무를 심고 가꾼 년한도 달랐다. 하지만 조국이 알고 인민이 아는 참된 애국자가 되려는 열정을 안고 삶의 순간순간을 빛내여가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애국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이고 투신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해 이 땅에 나무 한그루라도 더 심고 가꾸며 진심을 바치는 실천가가 되여야만 조국이 기억하는 참된 애국자가 될수 있다.

애국자라는 말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진심을 바쳐가는 참된 주인들에게 안겨지는 값높은 칭호인것이다.

본사기자



과학분원 애국수목조직배양연구소에서 —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애국의 마음안고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정성껏 키워간다. — 국가과학원 산림

최근 나무모생산의 발전추세

최근시기 나무모생산의 발전추세는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하는데로 나아가고있다.

나무모생산을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하자면 최첨단과학기술을 도입하고 생산경영활동의 정보화를 실현해야 한다.

지난 시기 나무모생산은 적합한 토양에 나무종자를 뿌리고 2~4년간 자래우는것이 기존관례로 되여있었다.

이렇게 하자면 많은 면적의 토지와 로력, 나무종자가 요구된다.

그러나 나무모생산에 현대과학기술을 받아들여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하면 적은 토지와 로력, 나무종자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짧은 기간에 많은 나무모를 생산할수 있다.

나무모생산을 과학화한다는것은 온실재배장과 야외재배장의 온도와 습도를 리상적인 나무모생육조건에 맞게 조절하기 위해 해비침조건과 바람세기, 관수조건 등을 제때에 알고 대책할수 있는 과학기술적조종체계를 갖춘다는것을 의미한다.

나무모생산의 공업화공정은 원료준비 및 분쇄공정, 발효공정, 기질혼합공정, 영양단지성형 및 절단공정, 종자뿌리기 및 운반공정을 거쳐 온실재배장과 야외재배장에서 나무모를 키울수 있게 되여있다.

나무모생산을 집약화한다는것은 나무모가 빨리 자랄수 있게 각종 영양성분들이 충분히 들어있는 영양단지를 리용하여 단위면적당 나무모생산을 대폭 늘이고 나무모의 생산기일을 줄이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지난 시기에는 보통의 방법으로 나무모를 2~4년동안 키워냈는데 나무모생산을 공업화, 집약화하면 1~2년동안에 키워낼수 있다.

영양단지나무모는 자체의 실정에 맞게 여러가지로 할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종이주머니영양단지모가 환경보호를 비롯하여 많은 측면에서 우월하다.

대체로 지난 시기의 생산방법으로는 1정보의 땅에서 몇해동안에 30여만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할수 있었다면 나무모생산을 집약화한 앞선 나무모생산방법을 받아들이면 과학기술적조건이 완전히 갖추어진 800여㎡의 온실에서 한해동안에 34만그루이상의 나무모를 생산할수 있다.

살리기 쉬운 나무모들은 주로 야외재배장에서 키우고 살리기 힘든 나무모들은 온실재배장에서 키우는것이 좋다.

이렇게 앞선 생산방법을 받아들이면 키워낸 나무모를 다른 곳에 옮겨심을 때의 사름률을 98%이상 보장할수 있으므로 경제적효과성이 크다.

앞으로 앞선 나무모생산방법을 전국의 모든 단위들에서 적극 받아들인다면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사업이 보다 빠른 속도로 진척될것이다.

중앙양묘장 지배인 김명철

평양방직기계공장혁명사적관 창립 30돐 기념보고회 진행

평양방직기계공장혁명사적관창립 30돐 기념보고회가 1일에 진행되였다.

보고회에는 공장과 혁명사적관일군들,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김철수 선교구역당위원회 책임비서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평양방직기계공장에 새겨진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복구건설시기 공장의 터전을 잡아주시고 주체45(1956)년 5월 27일 이곳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방직공업부문에서 요구되는 설비부속품들을 생산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50(1961)년 봄 이 공장에서 생산실습을 하실 때 몸소 26호선반을 돌리시며 모범기대창조운동의 불길을 지펴주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후에도 여러차례 공장을 찾으시여 로동계급이 이룩한 성과를 축하해주시며 계속 혁신을 창조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주체98(2009)년 9월 또다시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자그마한 방직기계제작소가 현대적인 방직기계생산기지로 강화발전되였다고 만족을 표시하시고 생산에서 대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지난 기간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혁명사적관을 훌륭히 꾸려놓았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혁명사적관일군들과 종업원들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사적건물들과 사적물들을 원상대로 보존하고 관리를 잘함으로써 우리 당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는 사업에 이바지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혁명사적관일군들과 강사들은 참관자들에게 백두산위인들의 위대성을 널리 해설선전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혁명위업수행에로 고무추동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보고자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절세위인들의 업적을 길이 전하며 생산을 끊임없이 늘임으로써 경제강국건설에 적극 기여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에로 생산자대중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 락랑옷공장에서 — 본사기자 찍음

인민의 충복된 자각안고 언제나 군중속으로

찾아오기 전에 찾아가자

순천석회질소비료공장 초급당위원회 일군들

하루사업총화를 마친 순천석회질소비료공장 초급당일군은 서둘러 사무실을 나섰다. 생필품장에서 일하는 허동무의 가정방문을 위해서였다. 한것은 그가 얼마전부터 사람들속에서 이전과 같지 않다는 말을 듣기 때문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일군들속에서 인민대중에 대한 관점을 바로가지고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는 좋은 미풍이 높이 발양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실 초급당일군들은 그를 위해 걸음도 많이 걷고 품도 많이 들이였다. 정성을 들이는것만큼 열매가 열리기마련인것이다. 그는 당조직과 동지들의 방조밑에 당원으로, 초급일군으로 성장하였다. 그랬던 그가 얼마전부터 왜 사람들의 말밥에 오르게 되였는가.

사람은 믿음을 주면 그에 보답하는것이 의리이고 도리이다.

초급당일군은 생각할수록 속이 내려가지 않았다. 당장 불러올 생각이 불쑥 치밀어올랐다. 하지만 생각을 달리하였다. 일부 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를 즉흥적으로 평가하는것은 어머니당의 일군으로서의 사업태도가 아니다.

(그가 찾아오기 전에 먼저 찾아가자.)

초급당일군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데는 그럴만 한 사연이 있었다.

언제인가 수송직장의 어느 한 운전사에 대한 평가문제가 제기되였을 때였다. 수송실적에서 그 운전사는 언제나 앞자리를 차지하고있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에서 일군들이 주저하는것은 무엇때문인가. 초급당일군은 수송직장에 나가 초급일군들과 오랜 운전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구체적인 사실을 알게 되였다. 지난날의 일을 가지고 일부 사람들이 평가사업에서 그것을 고려하고있는것이였다.

물론 그때 그 운전사의 문제는 제때에 바로잡혀 당원으로, 혁신자로 자라나게 되였다.

만약 그때에 초급당일군들이 일부 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를 외면하였다면 어떻게 되였겠는가.

초급당일군은 이런 생각을 하며 허동무의 집으로 발걸음을 다그쳤다. 방안에 들어서니 허동무의 병이 중하다는것이 한눈에 안겨왔다. 초급당일군을 본 그는 언제부터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기에 직장일의 바쁜 고비나 넘기고 치료를 받으려 하였는데 이렇게 자리에 눕게 되여 정말 면목이 없다고 말하는것이였다.

그의 말을 듣는 초급당일군의 가슴에는 뜨거운것이 불쑥 치밀어올랐다. 이런 사실도 모르고 잠시나마 그에 대한 속된 생각을 하였던 자신이 민망스러웠다.

이날 초급당일군은 그의 가정형편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며 치료대책도 세워주고 밤늦게 그의 집을 나섰다.

그를 탓하기에 앞서 먼저 찾아간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가.

이런 일이 있은 후 초급당일군들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는 방법으로 사람과의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나갔다.

본사기자

평범한 날에 있은 일

평양역 초급당위원회에서

평양역에 경사가 났다.

만사람의 축복속에 또 하나의 선군시대 새 가정이 태여난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사람들이 혁명적동지애를 지니고 합심하여 일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얼마전 려객중대 부문당비서 박정화동무가 역초급당비서를 찾아왔다.

《비서동지, 우리 중대의 김옥영동무가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옥영동무가 역에서 안내원으로 일하기 시작한것은 몇해전이였다. 뜻밖에 아버지를 잃은데다가 얼마전에는 어머니마저 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전혀 내색없이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성실하게 하고있는 그를 은근히 역의 끌끌한 기둥감으로 여기며 남다른 관심을 돌려온 초급당비서였다.

그날 저녁 초급당일군은 역장 최평일동무와 마주앉았다.

《우리 집단이 나서서 그의 결혼상도 차려주고 살림살이도 꾸려주는것이 어떻습니까.》

《찬성입니다. 선군시대의 새 가정이 태여나는데 우리가 도와주는것이야 응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김옥영동무는 자기들의 결혼식을 조용히 하려고 하였다. 자기를 위해 왼심을 쓰며 하나라도 도와주기 위해 애쓰는 려객중대원들이였다. 그들이 이것을 알면 가만있지 않을것이라는것은 너무나 뻔하였다. 하지만 남을 위해 자신을 바칠줄 아는것을 미덕으로 간직하고있는 려객중대원들의 불같은 마음이야 어디 가랴. 모두가 제일처럼 기뻐하였다.

그의 친부모가 된 심정으로 역장과 초급당비서가 결혼식준비를 서둘렀고 려객중대원들이 그의 친형제가 되여 첫 살림에 필요한 갖가지 생활필수품들을 마련하였다. 우리 사회에 또 하나의 세포가 태여나게 된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고 하면서 결혼상도 정성껏 차려주고 결혼기념품 하나에도 가정의 행복을 바라는 뜨거운 진정을 담은 김옥순, 림순희, 전명화, 황성실, 리춘월, 황순실동무를 비롯한 려객중대원들,

얼마나 뜨거운 집단인가.

이런 아름다운 인간들이 어찌 평양역에만 있다고 하랴.

이 땅 그 어디서나 이런 아름다운 소행들이 끝없이 꽃펴나고 그것이 평범한것으로 된 우리 인민의 생활이다. 내 조국의 1년 365일은 동지애의 날과 날로 흐르는것이 아닌가.

본사기자 황철웅

단상 거울

얼마전 성진제강련합기업소의 훌륭한 편의봉사기지인 성강원을 찾았을 때였다.

하루로동의 피로를 말끔히 가시고 성강원을 나서는 종업원들의 얼굴마다에는 기쁨의 웃음이 함뿍 피여있었다.

마냥 즐거워지는 마음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고있는데 성강원의 일군이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이런 날을 보자고 눈에 피발이 서고 입술이 부르터서 뛰여다니던 기업소당일군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로동자들의 저 밝은 얼굴에 당일군들의 헌신의 모습이 다 비껴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직이 하는 그의 말이 나의 가슴을 쿵 하고 울려주었다.

우리 당은 일찍부터 당일군들이 인민의 참다운 충복이 되여 인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복무할데 대하여 강조하여왔다.

누가 진실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당의 구호를 심장에 새기고 투쟁하였는가고 생각할 때 중요한것은 말이나 연설이 아니라 실천이다.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이 투철한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불리한 속에서도 우는소리나 조건타발을 모르며 대중의 앞장에서 완강한 실천력을 발휘하여 기어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고야 만다. 그리하여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당의 은혜로운 손길을 광범한 대중이 실지 페부로 뜨겁게 느끼게 한다.

그렇다. 성강의 로동계급만이 아닌 강성대국건설대전이 벌어지는 이 땅 그 어느 전투장들에서나 기쁨과 랑만, 즐거움에 넘쳐 터치는 우리 인민의 밝은 웃음,

그것이야말로 인민의 참다운 충복된 모습을 그대로 비쳐주는 우리 당일군들의 진정한 거울이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리정수

대 고 조 의 밑 불 이 되 여

김책제철련합기업소 화학분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시대의 자력갱생선구자가 되자면 우에서 대주면 좋고 안대주어도 제힘으로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투쟁하여야 합니다.》

시험생산과정을 지켜보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 화학분공장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누구도 말이 없었다.

(꼭 성공하여야 하겠는데…)

기대어린 눈빛들만이 긴장하게 오갔다. 그때 시험생산현장에 들어선 분공장초급당일군이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하였다.

《질좋은 절연물이 꼭 나올겁니다.》

그 말에 모두가 긴장을 풀며 미소를 지었다.

지난해 1월이였다. 그때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높이 들고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편지를 보낸 김철은 어느 단위에서나 비약의 열풍을 안고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분공장에서도 철강재생산을 믿음직하게 보장할 결심을 안고 전투목표를 높이 내세웠으며 생산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작업반별로 기술혁신경기를 조직하고 일군들과 기술자, 종업원들이 모두 참가하는 기술혁신현상모집사업을 진행하였다. 제출된 수많은 기술혁신안들중에서 사람들의 각별한 이목을 끈것은 분공장 계획부원이 내놓은 무수프탈산생산방법이였다.

—무수프탈산만 있으면 자체의 힘으로 절연물을 생산하여 철강재생산에 이바지할수 있다.

종업원들은 이러며 기뻐하였다.

철강재생산이 기본인 김철에서 제일 필요한 자재의 하나가 전동설비, 송풍설비들을 비롯한 각종 동력설비들의 수리, 보수에 필요한 절연물이였다. 바로 그 절연물생산의 기본원료라고 할수 있는 무수프탈산을 분공장에서 자체의 힘으로 생산할수 있는 대담한 안이 나온것이다.

기술혁신안은 대중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고 련합기업소적인 기대를 모았다.

무수프탈산을 자체로 생산하기 위한 기술혁신돌격대가 조직되였다. 계획부원을 비롯한 돌격대원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였다.

하지만 기술혁신안을 실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실패가 거듭되자 일부 사람들은 할수 없는 일을 시작한것이 아닌가고 하면서 맥을 놓으려 하였다. 그때 그들과 함께 밤을 밝히던 초급당일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무슨 일에서나 정신력이 기본이요. 자기 힘을 믿는 정신적강자는 천리도 지척으로 보고 막혔던 길도 열어나갈수 있지만 제힘을 믿지 못하는 정신적약자는 지척도 만리처럼 여기면서 열려진 길로도 나가지 못하오.》

그는 우리가 하는 일은 김철의 철강재생산에 크게 이바지할수 있는 일이라고, 제힘을 믿고 집체적지혜를 합쳐 무수프탈산을 기어이 생산함으로써 절연물문제를 꼭 풀자고 절절하게 말하였다.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위해 김철에 나와있던 리과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그들을 도와나섰다. 그들은 분공장의 기술집단과 한마음이 되여 새로운 방도도 찾고 기술자, 로동자들에게 선진기술에 대한 강의도 해주면서 적극 도와나섰다.

그후 분공장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무수프탈산을 얻어내는데 성공하고야말았다. 분공장에서는 신심에 넘쳐 련이어 절연물생산공정을 꾸리는데 달라붙었다. 그러던 지난해 12월 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찾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김철의 로동계급이 또다시 대고조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새해에도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생산돌격전의 앞장에서 달릴데 대한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그날 분공장 일군들과 기술자, 종업원들은 자체의 힘으로 설비들을 제작하고 생산공정을 꾸려 1월중에 기어이 절연물을 생산해낼 결의를 다지였다.

그러던 어느날 저녁, 절연물생산공정이 들어앉게 될 현장으로 들어서던 초급당일군은 누군가의 열띤 목소리에 걸음을 멈추었다.

《안되오. 생산계획때문에 절연물시험생산을 늦잡을수는 없소.》

책임기사의 목소리였다. 뒤이어 기술혁신돌격대원인 생필작업반장의 목소리가 울리였다.

《옳습니다. 우리는 대담한 공격정신을 안고 1월생산계획도 넘쳐 수행하여야 하며 한주일후에는 절연물시험생산도 기어이 보장해야 합니다.》

초급당일군은 머리를 끄덕이였다.

《옳소.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생산돌격전에로 부르는 편지를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낸 우리가 난관앞에 조금이라도 주저한다면 어찌 대고조의 앞장에서 달리는 김철의 로동계급이라고 하겠소.》

그러며 그는 올해공동사설에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밑불이 되자는 말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밑불, 얼마나 좋은 말이요. 우리모두 철강재생산을 위한 밑불이 되여 질좋은 절연물도 꼭 생산해냅시다.》

그때로부터 한주일후인 지난 1월 중순, 분공장에서는 자체로 꾸린 절연물생산공정에서 첫 시험생산에 들어갔던것이다. …

시험생산과정을 지켜보던 분공장일군들과 기술자들은 환성을 터치였다.

《성공이다!》

정말로 성공이였다.

《계획부원동무, 이 절연물에 〈밑불절연물〉이라는 이름을 붙이는게 어떻습니까?》

한 기술혁신돌격대원의 말이였다.

대야금기지 김철에서 화학분공장은 눈에 선뜻 뜨이지 않는 단위이다. 그러나 김철에 가면 화학분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가리켜 철강재생산에서 밑불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밑불과 같은 사람들, 이 부름속에는 철강재생산으로 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는 화학분공장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의 참모습이 비껴있다.

본사기자 로 주 봉

봄철위생월간사업에 적극 떨쳐나서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거리와 마을, 일터는 사람들의 집단생활거점입니다. 거리와 마을, 일터를 깨끗하게 꾸려야 온 나라에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할수 있으며 사람들이 언제나 명랑하고 문명하게 생활하고 일하게 할수 있습니다.》

올해의 봄철위생월간사업이 시작되였다.

올해공동사설에는 자기 고향, 자기 일터를 사회주의선경도시, 선경마을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되여있다.

당의 호소를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년초부터 평양시를 비롯한 전국각지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 자기가 사는 거리와 마을, 일터를 보다 훌륭하게 꾸리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봄철위생월간사업에서는 모든 지역, 모든 단위들에서 겨울난 흔적을 말끔히 가실뿐아니라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생산조건을 마련하는데 주되는 힘을 넣어야 한다.

이 기간에 도시와 농촌들에서는 목욕탕과 리발소 등 공공위생시설물들을 보수, 정비하는 사업과 도랑치기, 주변정리, 꽃밭정리 등 생활환경을 알뜰히 꾸리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야 한다. 상하수도망들에 대한 보수정비도 잘해야 한다.

도로를 포장하고 울타리와 벽체들도 일매지게 잘 보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터와 가정을 보다 환하고 알뜰하게 꾸려 구석진 곳이 없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꾸려놓은 모든것들을 유지하고 공고히 하기 위한 관리사업에 애국의 열정을 바쳐야 한다.

생활환경, 생산환경을 어떻게 꾸리고 사는가 하는것은 단순한 실무적문제가 아니라 강성대국건설위업에 대한 신념과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뜨거운 향토애, 공장애를 지니고 자기가 살며 일하는 거리와 마을, 일터를 선경으로 꾸리기 위하여 심장을 불태우고 헌신하는 사람만이 어버이수령님의 부강조국건설구상을 현실로 꽃피우는 강성대국건설시대의 참된 애국자라고 말할수 있다.

올해의 봄철위생월간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 사업의 주인들인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에 첫째가는 힘을 넣어야 한다.

그리하여 이 사업에 참가하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속에 애국의 더운 피가 펄펄 끓어번지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각급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일군들부터 생활환경을 아름답게 꾸리기 위한 사업의 앞장에 서서 그 어느때보다 대담하게 작전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나가야 한다.

각급 위생지도위원회들에서는 위생월간사업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단계를 정해놓고 목표를 정확히 세우며 본보기를 창조하고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월간사업을 적극적으로 밀고나가야 한다.

일군들은 현지에 직접 내려가 조직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며 사람들의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켜 이 사업이 철저히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보장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위생방역기관 일군들은 해당 단위 일군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위생월간사업정형을 장악하고 통보해주며 위생선전과 검열을 따라세우면서 강하게 밀고나가야 한다.

가정과 일터, 거리와 마을을 보다 아름답고 문화위생적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은 대중자신을 위한 일이며 광범한 대중이 동원될 때 성과를 거둘수 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봄철위생월간사업에 적극 참가하여 거리와 마을, 일터를 보다 문화위생적으로 꾸려 조국강산을 사회주의선경으로 가꾸어가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내외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역행하여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이 끝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전쟁연습을 벌려놓았다.

우리 공화국의 평화적발전을 각방으로 방해하고 우리 제도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예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다는것이 다시금 실증되고있다.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아시아대륙의 동쪽을 압박하기 위하여 전 조선반도를 군사적으로 타고앉으려는 미국의 북침전쟁연습이며 우리에 대한 핵선제타격을 노린 작전계획에 따라 미국의 방대한 핵공격수단들이 투입되는 핵전쟁연습이다.

미국이 그 누구의 《도발》에 대하여 운운하고있지만 이번 합동군사연습이야말로 누가 보기에도 도발이 아닐수 없다. 조선반도의 첨예한 정세를 놓고 국제사회가 한결같이 심중한 우려를 표명하고있는 시점에 기어코 이 연습을 강행하는자체가 명명백백한 도발이며 그 누구의 《급변사태》에 대비한다는 연습의 목적과 성격으로 보아도 도발중의 도발이다.

남조선이 북남대결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도발로 대화를 파탄시키려고 책동하리라는데 대해서는 예상했던바이다. 현 남조선당국은 집권하자마자 북남화해와 협력을 부정해버렸기때문에 어떻게 하나 다음선거때까지 자기의 대결정책을 합리화해야 할 정치적부담에 시달리고있다.

남조선당국의 이러한 심리를 리용하여 자기의 전략적안속을 채우려는 미국의 리기적인 심보에 문제의 엄중성이 있다. 미국은 남조선당국을 부채질하여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킴으로써 그를 구실로 미, 일, 남조선 3각군사동맹을 완성하고 이 지역전반에 대한 군사적패권을 확립해보려 하고있다.

호상 도발로 간주될수 있는 행동을 피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신뢰를 조성하자는 우리의 제의에 악랄한 군사적도발로 대답하는 미국이 남조선당국과 입을 맞추어 대화의 《진정성》을 운운하는것은 언어도단이며 위선이다.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려는 일념으로부터 대화의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전제조건없이 필요한 대화들을 가능한것 성사시키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였다. 조선반도와 지역의 긴장고조를 우려하는 전반적인 국제사회도 우리의 평화애호적인 대화노력에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보내오고있다.

이러한 대세의 흐름과 완전히 배치되게 또다시 대규모적인 북침전쟁연습을 벌려놓은 미국의 강권적인 처사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있다.

정당방위를 위한 우리 군대의 물리적대응이 불가피해지고있으며 모처럼 마련되고있던 대화와 긴장완화의 기회가 사라져가고있다. 미국은 저들이 감행하는 군사적도발이 초래하게 될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여있다.

미국은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을 격화시켜 얻는것보다 잃는것이 더 많다는것을 똑똑히 알게 될것이다.

주체100(2011)년 3월 1일
평 양

가치있는 과학기술적문제해결에 중심을 두고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우리의 미더운 과학자들이 최첨단돌파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우리 당의 웅대한 강성대국건설구상을 현실로 꽃피워나가기 위해 세계를 놀래우며 최첨단을 돌파해가는 과학자들속에는 철도과학분원 철도자동화연구소 과학자들도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학기술발전에서 남이 걸어온 단계들을 뛰여넘어 세계적수준으로 비약하려는것이 당의 의도이며 요구입니다.》

경제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할 불타는 일념을 안고 철도자동화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드높이 과학연구사업에 새로운 비약의 박차를 가하며 힘찬 진군을 다그쳐나가고있다.

지난 기간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수많은 과학연구성과들을 달성하여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를 보장하는데 적지 않게 이바지하였다.

강성대국의 체모에 맞게 철도를 현대화하기 위하여 연구소가 내세운 과학연구목표는 참으로 방대하고 아름찼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최첨단돌파전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최단기간내에 기관차를 현대화하는것은 자기 분야의 첨단과학기술은 물론 린접과학기술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는 최첨단돌파전이였다.

—남들이 해놓은것을 따라가서는 최첨단의 전렬에 설수 없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는 넓고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담하게 최첨단돌파전에 뛰여들자.

이것은 과학기술경쟁에서 남들을 압도하겠다는 강한 민족적자존심을 지닌 이곳 과학자들의 심장속에 간직된 철석같은 신조였다.

온 연구소에 최첨단돌파의 열풍이 세차게 몰아쳤다.

소장 신학섭, 부소장 리순형동무들은 과학자들의 앙양된 열의를 불러일으키는 한편 과학기술개발에서 명맥으로 되는 기본열쇠도 찾아주었다.

가장 높은 급의 기술과 정밀도를 요구하는 역변환기 제작이 제기되였을 때였다.

최첨단회로를 설계하고 정수들을 결정해야 하는 여러가지 기술적난문제들이 수없이 제기되였으나 참고할 기술문헌들은 하나도 없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분원의 일군들은 과학자들속에 들어가 오늘 우리의 최첨단돌파는 단순히 앞선 나라들의 수준을 따르거나 본따는것이 아니라 우리 식으로 최첨단경쟁에서 남들을 압도하는것이라는것을 다시금 자각하게 하였다.

실장 최성덕, 연구사 리청일동무들은 견인불발의 의지로 두뇌전, 기술전을 맹렬하게 벌려 역변환기기술을 하나하나 터득해나갔으며 고심어린 탐구와 노력을 기울여 마침내 모든 면에서 앞선 나라들의것과 당당히 겨룰수 있는 우리 식의 역변환기를 훌륭히 제작하였다.

연구사 림경갑동무는 높은 전압이 흐를 때 대출력소자들에서 발생하는 열을 방지하기 위한 랭각문제와 전력전자장치들의 각종 보호문제를 훌륭히 해결하였다.

전동기틀제작과 설계를 맡은 박명진, 김영환동무들은 현장기술자들과 적극 협력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발전된것을 압도하기 위해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 짧은 기간에 완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성과에 만족을 모르는 이곳 과학자들은 올해에 인민경제의 선행판인 철도의 현대화를 더욱 다그치기 위한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과학연구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남들이 못한다는것도 기어이 해내고야마는 불굴의 기질과 무엇을 하나 만들어도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할 담대한 기상을 지니고 모든 일을 완전무결하게 해놓는 혁명적일본새로 대고조시대의 순간순간을 빛내여나가는 철도과학분원 철도자동화연구소의 과학자들, 최첨단돌파전에서 새로운 비약의 폭풍을 일으키며 힘찬 공격전을 벌려나가는 이들의 투쟁은 계속되고있다.

본사기자 김 경 철

두뇌전, 기술전으로 새로운 비약을

철도과학분원 철도자동화연구소의 과학자들

생산성이 높은 품종개량에 큰 힘을

농업과학원 축산학연구소에서

농업과학원 축산학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이 생산성이 높으면서도 생활력이 강한 집짐승우량품종들을 더 많이 연구개발하기 위한 최첨단돌파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소장 신강동무는 모든 과학자들이 축산과학기술을 발전된 높은 수준에 끌어올리며 최첨단과학기술을 연구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고있다.

실장 리송길동무를 비롯한 연구집단에서는 우수한 종자를 가장 정확히 평가할수 있는 새로운 연구과제를 완성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전국적인 범위에서 종자개량을 위한 연구사업을 실속있게 내밀고있다.

집짐승들의 인공수정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고 인공수정기구들을 창안제작한 과학자들은 새끼생산성이 높고 먹이소비단위가 낮을뿐아니라 빨리 자라면서도 고기의 맛이 좋은 여러 품종의 돼지종자를 퍼뜨리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내밀고있다.

이것은 전국의 여러 돼지공장들에 도입되여 큰 은을 내고있으며 우량품종의 돼지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과학자들은 재래종염소를 젖을 많이 내는 우량종염소로 개량하기 위한 종축체계를 세워 우량품종들을 더 많이 얻어내였으며 이들의 노력으로 많은 로력과 먹이를 절약하는 우량품종의 염소마리수를 짧은 기간에 대대적으로 늘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본사기자

무비루스감자종자생산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연구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농업과학원 농업생물학연구소에서— 리 충 성 찍음

해주정보기술전문학교에서

교정에 차넘치는 최첨단돌파열풍

해주정보기술전문학교가 들끓는다.

올해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교원들의 불타는 열정속에 교정에는 최첨단돌파의 열풍이 세차게 몰아치고 교육의 질제고와 경공업발전에 이바지하는 좋은 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교원들이 어떻게 일하는가 하는데 따라 교육사업의 성과와 조국의 미래인 새 세대들의 질적상태가 규정됩니다.》

학교는 실력이 높은 교육단위들중의 하나이다.

이곳 교원, 학생들은 최근년간 교수경연과 프로그람경연, 모의실험실습프로그람경연 및 다매체편집물전시회를 비롯하여 전국적인 범위의 경연과 전시회들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발명권과 창의고안증서를 비롯한 증서들도 수십건이나 받았다. 전기세포융합기계작을 비롯하여 과학연구성과들도 수많이 이룩하였다.

올해 이들이 내세운 목표는 참으로 높다. 하지만 자신만만한 배심을 안고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리는 일군들과 교원들이다.

모든 과목들의 교수에 다매체편집물과 모의실습프로그람을 도입할것을 결의해나선 콤퓨터강좌와 정보통신학강좌 교원들은 집체적지혜를 합쳐가며 교육실천에 의의있는 프로그람들과 편집물제작에서 성과를 올리고있다.

시의 어느 한 가금공장에 달려나가 알깨우기온도조종장치의 현대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마지막단계에서 다그치고있는 원종섭, 정명철동무들과 방송설비의 현대화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한정원, 리룡남동무들로부터 날아오는 혁신적인 과학연구성과소식들은 교정을 들썩하게 하고있다.

교장 림창조동무가 텔레비죤중계기의 원격조종감시체계확립을 위한 과학연구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한것을 비롯하여 일군들이 최첨단돌파를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섰다.

일군들의 실천적모범은 교원들을 더욱 분발시키고있다.

모든 교원들이 한건이상의 첨단교육방법들을 내놓을것을 결심하고 지칠줄 모르는 열정으로 사색과 탐구의 낮과 밤을 이어가고있다.

학교에서는 교원들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교수경연과 교육경험토론회, 과학평의회를 방법론있게 잘 조직하고있다. 그리하여 교원들의 불타는 열의가 짧은 기간에 응당한 결실을 맺게 하고있다.

얼마전에도 학교일군들은 과학평의회를 잘 조직하여 좋은 연구경험들을 일반화하고 현실연구과정에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집체적지혜를 모아 성과적으로 풀어나갔다.

본사기자 리 은 남

전국선군시대농근맹열성자회의 참가자들

만경대 방문, 평양시내 여러곳 참관

【평양 3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전국선군시대농근맹열성자회의 참가자들이 1일 혁명의 요람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할아버님이신 김보현선생님과 할머님이신 리보익녀사의 묘,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과 어머님이신 강반석녀사의 묘에 화환과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묵상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시여 어린시절을 보내시며 혁명의 큰뜻을 키우신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그들은 대대로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만경대일가분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참가자들은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승리를 위하여, 나라의 자주적통일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친 렬사들의 숭고한 투쟁정신을 다시금 가슴깊이 새겨안았다.

당면한 농사차비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만경대구역 칠골남새전문농장을 찾은 그들은 이곳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성실한 일본새에 감동을 금치 못해하면서 올해 농업생산에서 변혁을 일으키는데 헌신할 결의를 가다듬었다.

참가자들은 이밖에 3대혁명전시관 농업관, 중앙계급교양관을 참관하였으며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하였다.

아시아나라들을 방문하는 조선사회과학자협회대표단 출발

아시아나라들을 방문하기 위하여 김창룡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사회과학자협회대표단이 1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하였다.

도이췰란드그리스도교민주동맹 출신 련방의회 의원일행 도착

유르겐 클림케 도이췰란드그리스도교민주동맹 출신 련방의회 의원과 일행이 1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군과 주조 도이췰란드 련방공화국 림시대리대사가 맞이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슐쯔세계투자유한공사 총재 도착

【평양 3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슐쯔세계투자유한공사 총재 가브리엘 데이비드 고틀리에브 슐쯔가 1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독자의 편지

뜨거운 진정속에

우리 영예군인들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가도록 밑거름이 되고 원예사가 되여주는 고마운 사람들의 소행을 알리자고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제가 영예군인이 되여 고향으로 돌아온지 어느덧 10년이 되여옵니다. 그 나날 저의 마음속에 자그마한 그늘이라도 질세라 친부모, 친형제가 되여준 강서은하피복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바치는 진심을 대할 때마다 정말 사회주의 내 나라가 제일이라는 생각이 가슴을 울립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지만 영예군인인 저를 위하는 그들의 진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예군인들을 돕는것은 응당한 의무이고 도리라고 하면서 별식이 하나 생겨도, 보약재가 하나 생겨도 달려오군 하는 고마운 사람들, 새살림을 펴는 저를 위해 결혼상도 차려주고 세간나는 친자식, 친동생의 살림을 꾸려주는 심정으로 앞을 다투어 문화기재들과 생활용품들을 마련해준 한식솔들,

때없이 찾아와 생활에 자그마한 애로라도 있을세라 마음쓰는 그들을 볼 때마다 저와 가족들은 눈굽을 적시군 합니다. 저의 집에 찾아와 친혈육의 정을 부어주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할수 없는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맹세다집니다. 그들의 진정을 심장에 새기고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일편단심 위대한 장군님만을 우러러 피고 또 피는 붉은 꽃이 되겠다고.

진정 위대한 장군님을 사회주의대가정의 어버이로 높이 모신 내 나라, 내 조국이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강서구역 탄포동 차 철 진

영원히 안겨살 사랑의 품입니다

류 미 영

제 나이 어느덧 90이 되였습니다.

조국의 품에 안겨 25년, 매일같이 받아안는 사랑에 격정을 금할수 없는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국사에 그토록 바쁘신 속에서도 저의 생일(2월 14일)을 잊지 않으시고 은정어린 생일선물상을 보내주시였습니다.

자신께서는 생신날마저 오직 어버이수령님의 념원을 꽃피우시려 초강도강행군현지지도의 길에 바치시면서도 이렇듯 은정어린 사랑을 베풀어주시니 송구스럽기만 합니다.

따뜻한 사랑이 넘쳐나는 생일상을 받아안고보니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누려온 영광과 행복의 나날들이 삼삼히 어려오고 가슴속에 차오르는 감사의 정을 억제할수 없습니다.

환생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지난날 남조선이나 해외에 있을 때에는 생일날이요, 환갑날이요 하면 쓸쓸하고 서럽기만 하던 저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랑과 정으로 가득찬 구갑상앞에 앉고보니 태양의 빛발속에 건강을 되찾고 행복한 삶을 누려온 나날들이 삼삼히 떠오름을 억제할수 없습니다.

원래 저는 조국에 영주하기 전에 벌써 종양질환으로 인하여 의학적으로는 사형선고를 받았고 육체적으로는 이미 지옥행에 오른 상태였습니다.

1984년 3월 예순세살 잡히던 해에 저는 병세가 점점 악화되여 운신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수술을 받자고 해도 미국땅에서 종양수술을 한번 하는데 적어도 몇만딸라, 어려운 수술같은것은 부르는것이 값일진대 그 많은 치료비도 문제거니와 설사 수술을 해도 병을 고칠수 있다는 담보도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 내 인생에서 그때처럼 삶에 대한 애착과 절망사이에서 몹시 고민해본적은 없었던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어떻게 해서나 병을 털어버리고 일어서야 하겠다는 생각보다도 이제는 인생을 다 살았다는 허탈감밖에 없었습니다. 태를 묻은 조국에 가보지 못한채 타향만리에서 생을 마쳐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냥 서글프기만 하였습니다.

구원의 손길을 내밀 곳 없는 이역땅에서 생사를 운명에 맡기고 죽음만을 기다리던 바로 그때 뜨거운 인간애와 숭고한 의리로 환생의 기적을 안겨주신분은 어버이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이시였습니다.

제가 사경에 처한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즉시 조국으로 불러 치료해줄데 대한 긴급조치를 취해주시였습니다.

그것은 정녕 지구한끝 머나먼 아메리카땅에까지 비쳐든 가슴뜨거운 재생재활의 빛발이였습니다.

남편(최덕신)과 함께 조국에 온 저는 중앙의 큰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공화국에서 의술이 제일 높고 림상경험이 풍부한 박사, 교수들로 무어진 의료진의 특별한 관심속에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엄청난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기적같은 환생이였습니다.

그때 제 수술을 맡았던 의사선생이 웃음을 머금으며 《선생은 이제 100살은 문제없습니다.》라고 하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의사로서의 의학적진단이나 제 생명의 육체적한계에 대한 말이 아니였습니다. 만물에 생을 주고 열을 주는 태양의 자양과도 같은 위인의 사랑이 있기에 제가 앞으로 백살장수를 반드시 노래하게 될것이라는 확신이였습니다.

이미 죽음의 문턱에 가있던 인간이 다시 대지를 활보하게 된것은 물론 백살장수까지 담보받게 되였으니 이야말로 절세위인들의 인간사랑, 동포사랑이 낳은 또 하나의 환생의 전설이 아니겠습니까.

지난날 망명객의 설음과 눈물속에 삶의 닻을 내리지 못하고 방황하던 저희 부부가 《신인간》으로 될수 있은것도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은정이 있었기때문입니다.

기억도 새로운 1986년 8월 16일 공화국을 네번째로 방문하였을 때입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저희 부부를 다정히 불러주시고 저에게 부정맥이 자주 와서 고생한다는데 지금은 어떤가고 하시며 수술을 받은 후 건강상태에 대하여 친부모의 심정으로 따뜻이 물어주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부정맥은 늙으면 의례히 오지만 그런 사람들은 의사들의 정상적인 감시속에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가슴속깊이 묻어두고있던 조국영주의 소망을 풀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부부가 조국의 품에 안긴 그날부터 오늘까지 저를 늘 의사들의 감시속에 살게 해주시면서 저의 건강에 자그마한 이상이 생길세라 세심히 보살펴주시였습니다.

온 나라가 뜻밖에 어버이수령님을 잃고 피눈물속에 잠겨있던 그때 그 누구보다 비통한 마음을 안고계시면서도 손수 전화를 거시여 어버이수령님과 한 약속대로 온천휴양을 가도록 해주시고 해마다 료양하는것을 어길수 없는 일과로 정해주신 우리 장군님이십니다.

또 언제인가는 지금은 류미영위원장이 온천치료를 하는 때라고, 데리고가고싶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가서 푹 쉬도록 특별배려도 돌려주시며 희귀한 남방과일을 비롯하여 치료에 효과를 볼수 있는 음식들을 때없이 보내주신 장군님이십니다.

더우면 더울세라 추우면 추울세라 극진히 보살펴주시는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은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다심한 어버이의 그 사랑속에 지금은 혈압도 내장기능도 모두 정상이지만 조국에서는 유능한 중앙병원에 저를 데려다 등록해놓고는 한주일에 한번씩 무조건 검진을 받도록 하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꼭꼭 제정된 시간에 보약을 먹도록 《요구성》도 높입니다.

장수의 활력을 주시였습니다

비옥한 대지에서는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해빛이 눈부신 화원에서는 시들줄 모르는 온갖 꽃들이 만발하는 법입니다.

바로 제가 그러한 삶의 풍요를 맛보며 고목에 꽃이 피여나는 희한한 인생을 살고있습니다.

제가 90고개의 정점에 오를수 있은것은 결코 명이 길어서거나 유전적인 특수한 체질을 가지고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집 가문만 놓고보더라도 60살을 넘긴 사람은 오직 저밖에 없습니다.

파파 다 늙은 제가 의학이 내린 《사형선고》를 뒤집어엎고 90장수를 구가할수 있는 비결은 다름아닌 경애하는 장군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은퇴할 나이가 지나고도 남았지만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직책에서 사업하고있습니다.

너무나도 분에 넘치는 중책이 아닐수 없습니다.

우리 장군님의 하해같은 믿음은 그대로 저의 심장이 청춘의 박동으로 뛰게 하는 활력의 원천으로 되고있습니다.

나라일에 그토록 바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저의 사업과 생활에 자그마한 불편이 있을세라 깊이 마음쓰고계십니다.

집에서도 꽃방석에 앉아있게 해주고 밖을 나서도 고급승용차를 타고다니며 사무실에서도 금방석에 앉아서 일을 보도록 온갖 육친의 정을 베풀어주시는 우리 장군님이십니다.

몇년전의 일입니다.

저의 사무실과 방들이 협소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장군님께서는 즉시 사무실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잘 꾸려줄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자그마한 세부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헤아리시여 사무실을 정서가 넘쳐나고 품위있게 꾸리며 방조명등들도 녀성의 취미, 로인의 취미에 맞게 푸른 하늘색이 나는것으로 달아주고 방구조도 제가 좋아하는 형식으로 개조하며 최신식가구들을 일식으로 갖추어주도록 해주시였습니다.

하기에 미국에서 치과의사를 하는 손자가 30여년만에 조국을 방문하여 저의 집과 사무실을 돌아보고는 몹시 감탄해하였습니다. 그는 할머니는 참 훌륭한 사무실에서 일한다, 미국의 한다하는 사장들도 이런 사무실을 소유하기가 힘들다, 이 정도 꾸리자면 많은 돈이 들었겠는데 나라에서 다 해주었다고 하니 감복하게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더우기 저의 집에 정히 모셔진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이며 장군님께서 제가 올린 편지에 남기신 친필서한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는 친척들에게서 말은 많이 들었지만 실지 이렇게까지 최상급에서 사는줄은 몰랐다고, 세계를 둘러보면 한때 명망있던 정객이나 인사들도 늙어서는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 쓸쓸한 여생을 보내기가 일쑤인데 할머니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복을 누리고있으니 정말 행운을 타고났다고 감격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나 유럽에 있었다면 이 할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이 세상을 하직하였을것이다, 이런 행복의 요람에서 살기에 사랑하는 자식들이 여기저기에 있지만 그곳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의 품을 떠나 못사는것이 이 류미영이라는것을 잊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저를 각별히 위해주시니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를 존경해줍니다.

거리에 나서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달려와 인사를 하며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할머니라며 내 손목에 매여달리고 가는 곳마다 저에게 앞자리를 양보하며 우대해주니 한일없이 대접만 받는 저로서는 거북스럽기만 합니다.

돌아보면 60년동안 진정한 《애국》을 찾는답시고 민족주의도 해보고 망명객으로 여러 나라를 헤매였지만 차례진것은 랭대와 조소, 멸시뿐이였습니다.

따스한 인간의 정과 사랑, 참된 진리는 오직 위대한 장군님의 광폭정치, 인덕정치가 현실로 펼쳐지는 사회주의 우리 조국에서만 찾을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 나이 비록 90이지만 실지 나이는 25살이라고 자랑삼아 이야기합니다.

장군님품에 안겨 다시 소생한 때부터가 진짜나이라는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마음이 젊어지니 육체도 젊음을 되찾는가 봅니다.

얼마전 해외에서 살고있는 교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저를 보고 나이에 비해 10년은 훨씬 젊어보인다고 하면서 몹시 의아해하였습니다. 말하자면 마음고생이 많았을테니 육체도 그만큼 늙었으리라는 생각이 앞섰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보다싶이 나는 나이에 비해 젊고 건강하다, 믿어주고 내세워주신 우리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속에 살기때문이다, 누구나 안기면 만시름이 가셔지는 한울님같은 장군님의 광폭의 품에서 사니 몸도 마음도 젊어만진다고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실지로 저는 요즘 매일같이 젊어지고 생기가 솟는 기분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무한대한 열정을 지니시고 조국의 천리방선과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장들, 인민생활향상의 주요단위들을 끊임없이 찾으시는 거룩한 영상을 우러를수록 온몸에 부쩍부쩍 새 힘이 용솟음칩니다.

자나깨나 조국과 인민을 위해 선군령도의 불멸의 자욱을 새겨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과 매혹은 그대로 제몸의 로화를 가셔내는 장생불로약이 되고있습니다.

저는 90평생을 통해 확신하였습니다.

우리 겨레가 안겨살 품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사랑의 품입니다. 못난 자식, 잘난 자식 가리지 않고 따뜻이 안아주는 은혜로운 품, 한없이 넓고 넓은 그 품이 있어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하나되여 살아갈 통일조국이 있고 후손만대 복락을 누릴 강성번영의 창창한 앞날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더 바랄것이 없습니다.

남은 생을 깡그리 바쳐 그리고 대를 이어 절세위인들의 하해같은 은정에 결초보은하는것뿐입니다.

그러한 마음에서 저는 자식들앞에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으로부터 받아안은 귀중한 가보인 선물명세들을 펼쳐놓고 다시한번 당부하였습니다.

우리 가문은 대대로 애국하는 가문이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너희 선친들이 반일투쟁에 이바지한 자그마한 공헌을 높이 평가해주시고 이렇게 내세워주시였다, 너희들은 집안의 영광과 자랑을 잊지 말고 오로지 우리 생명의 은인이시며 영원한 삶의 태양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받들어모셔야 한다고 말입니다.

붓을 놓으면서 가슴속에 넘쳐나는 다함없는 감사의 정과 우리 가문, 온 겨레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다시한번 삼가 축원의 인사를 올립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민족의 안전과 리익을 침해하는 무모한 책동

회담결렬의 책임을 전가하는 속심

지금 해내외의 온 겨레는 군사실무회담을 결렬시켜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를 망쳐놓은 남조선당국의 대결적인 망동에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다. 그런데 남조선집권세력은 생뚱같이 회담결렬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려고 별의별 궤변을 다 늘어놓고있다. 그들은 우리의 대화제의와 그를 위한 실천적조치들에 대해 《위장평화공세》라느니, 《근본적변화가 아닌 전술적변화》라느니 하고 떠들면서 그때문에 회담이 파탄되였다는 불순한 여론을 내돌리고있다. 남조선보수언론들도 회담에서 취한 남측의 부당한 자세를 《당연한것》이라고 두둔하면서 《회담결렬은 북의 선택》이라느니, 《진정성이 보이지 않았다.》느니 하는 모략선전을 거듭하고있다. 그야말로 흑백을 전도하고 사태의 본질을 외곡하는 랑설이 아닐수 없다.

군부회담과 관련한 우리의 공보에도 상세히 밝혀져있고 내외가 공인하고있는바이지만 회담의 결렬은 남조선당국의 대화부정책동의 필연적 산물이다. 우리는 회담에서 남측의 주장도 충분히 고려한 성의있고 신축성있는 제안들을 거듭 내놓았다. 그와 반대로 남측은 자기의 주장만을 고집하였으며 지어 이미 합의한 내용까지 뒤집는 망동을 부리였다. 한편 남조선보수언론들은 《북의 대화공세에 흔들려서는 안된다.》느니 뭐니 하는 대화분위기를 해치는 기사들을 련일 쏟아내면서 회담의 진전을 극구 방해하였다. 우리의 아량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보수패당의 이런 불순한 대화파탄책동으로 회담은 끝내 결렬되고말았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우리를 걸고 드는것은 파렴치하기 그지없다. 그 뻔뻔스러운 속심이 대화파괴자, 북남관계파국의 장본인으로서의 저들의 반민족적정체를 가리우고 대결을 계속 격화시키려는데 있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더 엄중한 문제도 있다.

북남군사실무회담이 결렬된 후 남조선집권층속에서는 그 무슨 《북의 추가도발》이라는 극히 모략적인 나발이 요란스레 울려나오고있다. 그들은 《북이 도발해올수 있다.》느니, 《성동격서식의 기습도발이 예상된다.》느니 뭐니 하는 어처구니없는 소리들을 마구 늘어놓고있다.

지금 남조선호전세력은 북침전쟁도발책동을 그 어느때보다 강화하고있다. 괴뢰공군은 《북의 주요전략표적목표무력화》를 운운하며 《KF-16》전투기에 정밀유도폭탄을 설치하는 등 전투기들의 공격능력을 높이고있다. 괴뢰해군은 올해에 대잠수함훈련을 대대적으로 벌릴 계획을 발표하였다. 륙군도 그 무슨 《전투형야전부대육성》을 광고하며 사병들에게 동족적대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놀음을 벌리고있다. 남조선호전광들의 북침전쟁광기는 날을 따라 더욱 무모해지고있다. 2월 28일부터 남조선에서는 미항공모함까지 참가한 가운데 위험천만한 북침전쟁불장난인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고있다.

사실들은 남조선당국이 북남군사실무회담이 결렬된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려고 책동하는 목적이 대결정책강행의 구실을 마련하고 나아가서 외세와 야합하여 우리를 무력으로 해치자는데 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북남대화를 바라지 않으면서 대결과 전쟁의 칼을 벼리는것이 바로 남조선당국의 반민족적정체이다.

남조선당국이 대결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북남관계는 언제 가도 개선될수 없으며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만이 증대될것이다.

본사기자 은정철

대화파괴자들의 횡설수설

북남군사실무회담이 결렬된 이후 남조선집권세력이 여느때없이 《대화》문제를 입에 자주 올리고있다. 남조선국방부와 통일부당국자들은 지금 《대화의 문은 열려져있다.》느니 뭐니 하면서도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라느니, 지난 회담에서 저들이 들고나온 의제와 급수를 《받아들여야 한다.》느니 하고 떠들고있다. 이것을 놓고 내외여론은 남조선당국이 진심으로 북남사이의 대화를 바라고있는가에 대해 의심하고있다.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은 언제 한번 북남대화를 진심으로 바란적이 없다. 그들이 집권하자마자 《대화를 5년간 안하는 한이 있더라도 원칙을 가지고 대처하겠다.》는 망발을 늘어놓으면서 북남대화를 체계적으로 파탄시킨데 대해 우리 겨레는 너무도 잘 알고있다. 남조선당국이 얼마전에 북남군사실무회담에 나선것은 우리의 성의있는 대화노력과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내외의 강력한 요구를 더이상 외면할수 없는 처지에 빠졌기때문이였다.

지금 그들이 《대화》를 운운하면서도 저들의 부당한 립장을 철회하지 않고있는것은 진심으로 대화를 바라는 자세가 아니다.

지난 북남군사실무회담이 결렬된 원인은 남측이 회담의제, 급수와 관련하여 우리의 대범한 제의와 아량을 무시하고 저들의 부당한 주장만 되풀이하였기때문이다. 남측은 여러차례에 걸치는 우리의 아량이 담긴 수정안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저들의 제안만을 고집함으로써 결국 회담이 아무런 결실도 내지 못하게 했다.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사건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 국방위원회 검열단이 두차례에 걸친 진상공개장을 통해 낱낱이 폭로한바와 같이 남조선당국이 우리 공화국을 모해하고 북남관계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기 위해 조작한 특대형모략극, 계획적인 도발사건이다. 남조선집권세력이 우리를 파렴치하게 걸고들며 이번 회담에 제동을 건 저들의 불순한 제안을 계속 우기는것은 그들이 북남대화를 진심으로 바라지 않고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모처럼 마련되였던 북남대화를 결렬시킨 보수당국의 반통일적처사에 대한 단죄규탄의 목소리가 매일같이 울려나오고있다. 바빠맞은 남조선당국은 회담결렬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는 한편 저들이 대화에 관심이 있는듯 한 인상을 풍기기 위해 기만적인 여론을 내돌리고있는것이다.

남조선당국이 북남사이의 대화와 관계개선을 바란다면 무엇보다도 동족을 적대시하는 대결정책을 전환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적도발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북침을 가상한 도발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다. 이 전쟁연습에는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의 수많은 병력과 항공모함을 비롯한 최신공격수단들이 참가하고있다.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극도로 격화시키고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위험천만한 핵시험전쟁을 벌리면서 《대화》를 운운하는것은 실로 모순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기만적인 《대화》타령으로 여론을 오도하려 할것이 아니라 대화를 가로막고 전쟁위험을 고조시키는 반통일망동부터 걷어치워야 한다.

본사기자 심철영

여러 나라에서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을 규탄

스위스조선위원회와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가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여 2월 22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강행하려는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침략적인 전쟁연습이라고 단죄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것은 미제와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긴장완화를 바라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들은 지난해 11월 조선서해 연평도일대에서 일어난 남조선전쟁광신자들의 도발에 대처한 조선인민군의 정당한 반타격을 잊지 말고 교훈으로 삼아야 할것이다.

우리는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강력히 규탄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군이 취하게 될 모든 조치들을 전적으로 지지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전쟁소동을 반대한다!

전체 조선인민에게 련대성을 보낸다!

미군은 남조선에서 물러가라!

한편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의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여 조선과의 친선협회 영국지부가 2월 24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침략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조선반도의 정세를 완화하고 북남사이에 신뢰를 구축하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아량있는 평화제안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까밝히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자주적이며 평화애호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최근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북남사이의 신뢰를 구축하며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중대하고 건설적인 제안들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평화제안들을 거부하고 모처럼 마련된 북남고위급군사회담개최를 위한 예비회담도 고의적으로 결렬시켰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는것은 침략자, 전쟁도발자로서의 진면모를 스스로 드러내놓은것으로 된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전쟁연습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성과 존엄에 대한 엄중한 침해이며 여기에는 주체의 사회주의조선을 압살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다.

우리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합동군사연습을 당장 걷어치우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도발책동을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조선중앙통신】

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

재로조선공민중앙협회가 2월 28일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의 대규모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그 내용과 동원된 무력구성을 놓고볼 때 명백히 공화국을 불의에 공격하기 위한 침략적인 군사연습이라고 주장하였다.

모처럼 마련된 북남군부대화를 결렬시킨 남조선당국이 공화국에 대규모적인 전쟁연습으로 대답해나서고있다고 성명은 비난하였다.

성명은 재로조선공민중앙협회는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는 핵전쟁연습인 위험천만한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할것을 미국과 남조선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북침전쟁연습에 광분하는 남조선호전광들

통일운동가에 대한 탄압책동을 단죄

남조선의 청년학생단체들이 2월 24일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련합 남측본부 이전 의장 윤기진에 대한 괴뢰검찰의 재구속음모를 단죄하였다.

《한국청년련대》는 성명을 발표하여 윤기진이 옥중에서 글을 쓴것을 트집잡아 《보안법》위반혐의로 그에 대한 구속령장을 청구한 검찰당국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성명은 그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힘써왔다고 하여 옥고를 치르게 하고도 모자라 만기석방을 눈앞에 두고 구속령장을 청구한것은 참으로 기막힌 처사가 아닐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검찰당국이 윤기진에 대한 재구속음모를 계속 꾸민다면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라고 성명은 경고하였다. 성명은 《정부》가 하루빨리 반인권악법인 《보안법》을 폐지하고 억울하게 구속되여있는 사람들을 모두 석방시킬것을 요구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련대는 론평을 발표하여 윤기진에 대한 구속령장청구는 전례없는 탄압사건이라고 비난하였다. 론평은 검찰당국이 그를 위험한 인물로 묘사하며 구속연장을 주장하였지만 진짜 위험천만한 자들은 민생대란에 전쟁위기까지 몰아오는 당국자들이며 그들이야말로 하루빨리 구속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론평은 청년학생들이 검찰당국의 반인륜적망동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제도적용을 요구하는 집회 진행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제도의 즉시적용을 요구하는 집회가 2월 26일 일본 도꾜에서 진행되였다.

집회에는 320여개의 일본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고등학교지원대상에서 조선학교배제를 반대하는 련락회성원들과 일본시민들, 간또지방 동포들과 조선학교 학생들 수천명이 참가하였다.

집회에서는 고등학교지원대상에서 조선학교배제를 반대하는 련락회대표 하세가와 가즈오가 연설하였다.

그는 고등학교지원대상에서 조선학교만을 제외함으로써 일본사회에 인권유린, 편견과 차별, 배타주의를 더욱 조장시키는 일본정부에 대한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조선학교지원문제는 재일조선인들만이 아닌 일본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하면서 그는 조선학교 학생들의 배움의 권리를 짓밟는 일본정부에 맞서 전지역적범위에서 지원제도적용이 실현될 때까지 투쟁해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어 발언한 도꾜조선중고급학교 교장, 조선학교어머니회 대표, 조선학교 학생대표들은 조선사람으로서 조선의 말과 글, 력사를 배우는것은 응당하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주체성과 민족성을 견지하여 민족교육을 지켜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집회에서는 일본단체인사들이 발언하였다.

집회에서는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제도를 즉시 적용하여 조선학교 학생들의 배움의 권리를 보장할것을 일본정부에 요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조선학교차별을 용서 안한다!》, 《우리에게도 배움의 권리를!》 등의 횡단막과 구호판들을 들고 도꾜시내를 시위행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당국의 폭정을 심판하기 위한 투쟁 전개

남조선의 민주로동당과 진보련대, 참여련대를 비롯한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이 2월 25일 서울시청앞광장에서 괴뢰당국의 폭정을 심판하는 집회를 가지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현 당국의 집권이후 일자리가 날로 불안해지고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고있으며 경제위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탄처럼 민중을 위협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당국이 조선반도정세를 첨예하게 하는 대결정책만 고집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남북사이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있다고 그들은 비난하였다.

이제는 민심이 한계점을 넘어섰다고 하면서 그들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폭정이 초래한 지금의 사태를 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들은 모든 진보세력이 련대하여 민중을 무시하는 현 독재《정권》을 끝장내고 새세상을 세우기 위해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일본반동들의 총련시설강탈책동

일본반동들의 총련시설강탈책동이 극히 엄중한 지경에 이르렀다.

2월 18일 도꾜지방재판소는 총련중앙본부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정리회수기구의 가차압신청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도꾜지방재판소는 2007년 6월 정리회수기구가 이전 조은도꾜신용조합 등으로부터 사들인 채권가운데서 약 627억¥을 총련에 대한 융자로 인정하고 총련이 전액반환할것을 판결하였다.

이에 따라 정리회수기구는 2월 21일 가차압을 강행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일본반동들은 총련의 활동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며 정리회수기구를 내세워 대대적인 반공화국, 반총련소동을 집요하게 벌려왔다.

일본반동들의 총련시설강탈책동은 우리 공화국의 합법적인 해외교포조직인 총련을 해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선중앙통신】

령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전진하는 조선인민

여러 나라 인사들 우리 나라 대표부를 축하방문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수리아아랍사회부흥당 부총비서와 통일사회주의자당 지도부 성원들, 네팔공산당 (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기자협회 위원장, 전국기자구락부 위원장, 방글라데슈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사회주의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인민련맹 위원장, 주체사상연구소 위원장, 선군정치연구소조 위원장, 방글라데슈—조선친선 및 련대성위원회 서기장, 로씨야련방공산당 하바롭스크변강위원회 대표들, 이딸리아 국제대외교류재정그룹리사회 리사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2월 10일부터 16일까지의 기간에 해당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표부를 축하방문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립상화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증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여러 나라에서 경축집회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민주꽁고, 방글라데슈, 브라질, 몽골에서 2월 10일과 11일에 경축집회가 진행되였다.

집회들에는 2.16경축 민주꽁고준비위원회, 민주꽁고로동계시민협회, 민주꽁고—조선친선 및 련대성협회, 방글라데슈로동당, 민족사회주의당, 사회주의당, 방글라데슈—조선친선 및 련대성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 브라질위원회, 몽골평화친선련맹, 국방성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2.16경축 민주꽁고준비위원회 위원장인 로동계시민협회 위원장 로헤켈레 안드레와 민주꽁고—조선친선 및 련대성협회 위원장 오뗴떼 가스똥 음보요를 비롯한 연설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조선인민은 령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대국건설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다, 위대한 김정일각하를 모신 조선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진보적인류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압살책동속에서도 조선을 불패의 강국으로 만방에 빛내여나가시는 김정일각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방글라데슈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라쉐드 칸 메논, 민족사회주의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하싸눌 하크 이누, 방글라데슈—조선친선 및 련대성위원회 서기장 라기브 아흐싼 문나를 비롯한 연설자들은 김정일각하의 선군령도에 의하여 조선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과학기술강국, 핵보유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다고 격찬하였다.

그들은 김정일각하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가 있음으로 하여 조선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책동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빛나게 수호해나가고있다, 조선의 당과 정부, 인민이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 브라질위원회 위원장 쥬제 질데 알메이다는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국제사회에서 걸출한 정치가로 명망높으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드시였다.

선군으로 평화를 수호하시는 그이께서 계심으로 하여 조선은 자주의 보루, 평화의 성새로 길이 위용떨칠것이다.

우리는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정치를 적극 지지하며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전적인 련대성을 보낸다.

몽골평화친선련맹 총서기드. 빌레그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각하께서 탄생하신 2월 16일은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뜻깊은 민족최대의 명절이다.

김정일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강성대국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맞는 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

민주꽁고에서 진행된 집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여러 나라 신문들 기념글 게재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캄보쟈, 로씨야신문이 특집하고 기념글을 실었다.

캄보쟈신문 《인민》 2월 20일부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인민군부대를 시찰하시는 사진을 모시고 《만민이 흠모하는분》이라는 제목의 글을 편집하였다.

신문은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인민은 해마다 김정일령도자의 탄생일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경축하고있다.

김정일령도자는 자주의 강국에서 서로 돕고 이끌면서 존엄있고 화목하게 살며 세상에 부럼없는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려는 조선인민의 세기적숙망을 현실로 꽃피우는분이시다.

지난 세기말 조선인민에게 가장 엄혹한 시련이 닥쳐왔을 때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총대로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옹호고수할 의지를 안으시고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드시였다.

그이의 선군령도에 의하여 조선인민군은 그 어떤 침략세력도 단호히 물리칠수 있는 무적필승의 혁명무력으로 장성강화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을 반대하는 심리모략전을 집요하게 감행하고있지만 인민을 굳게 믿고 그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정을 베푸시여 온 사회를 서로 돕고 이끄는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으로 꾸리시였다.

로씨야신문 《레닌스까야 쁘라우다》 2월 15일부는 《인민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전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대중을 하늘로, 스승으로 여기시며 자신을 인민의 아들로, 충복으로 간주하신다.

그이께서 펼치시는 정치는 언제나 인민의 복리를 위한데로 지향되고있다.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조선의 사회주의제도가 날로 공고발전되고있는것은 김정일동지의 정치의 승당한 귀결이다.

조선인민이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사는것을 최대의 행복으로 여기며 그이를 위대한 어버이로 영원히 받들어모실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고있는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조선중앙통신】

위험천만한 북침핵시험전쟁

조선반도에 또다시 초긴장사태가 조성되고있다.

보도에 의하면 미국은 남조선과 야합하여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2월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감행한다.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일부 훈련은 4월말까지 진행되게 된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에는 미항공모함을 비롯한 최신전쟁장비들과 수많은 미제침략군과 수십만명의 괴뢰군병력이 동원된다고 한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위협이고 도발이다. 그것은 또한 조선반도의 긴장상태와 군사적대결을 격증시키고 정세를 전쟁국면에로 몰아가는 모험적인 불장난이다.

현 사태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미국은 어떻게 하나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정복하려 하고있다. 그 실천적움직임의 하나가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계단식확대이다.

지난해에 감행된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에 기존의 북침전면전쟁각본인 《작전계획 5027》보다 공격성이 훨씬 강화된 《신련합작전계획 5012》와 《작전계획 5029》까지 적용되였다는것은 이미 공개된 비밀이다. 이런 전쟁계획에 따라 합동군사연습의 기본이 공군무력과 특수전병력을 리용한 선제공격작전으로 우리의 전략적대상물과 수단들을 정밀타격하는 동시에 대규모의 지상무력을 《북진》시키는것으로 되였었다. 합동군사연습내용도 《대량살상무기제거작전》과 지휘거점타격과 같은 공격작전 등이 중점을 이루었다.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철두철미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해칠 흉계밑에 전면적인 핵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위험천만한 대규모시험전쟁이다. 미국이 올해에 벌리는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내용에 그 누구의 《붕괴》를 가상한 《급변사태》대비훈련확대강화를 포함시키기로 한것 등은 이번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성격과 위험성을 더욱 드러내보여주고있다.

더우기 스쳐지날수 없는것은 이번 합동군사연습에 미항공모함이 동원되는 사실이다. 미제는 지난해에도 항공모함을 끌어다놓고 조선동해와 서해에서 광란적인 전쟁연습들을 벌렸다. 얼마전 미제7함대사령관은 앞으로도 조선서해에 미항공모함을 계속 파견할것이라고 줴쳤다. 미국은 이렇게 항공모함을 조선동서해에 빈번히 파견하다가 임의의 시각에 그것을 실전으로 전환시켜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려 하고있다. 이번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실전에로 한걸음 더 접근하는 북침전쟁연습으로 되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미국과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의 무모한 전쟁연습소동은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세계인민들의 지향에 배치되는 시대착오적인 범죄행위이다.

우리 공화국은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보장체제수립과 비핵화를 위하여 신축성있고 현실성있는 합리적인 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화쌍방이 서로 상대방을 자극하는 군사적행동을 극력 자중하고 대화분위기를 조성하며 호상신뢰를 도모하기 위해 힘써야 할 때이다. 그런데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이와는 정반대로 대규모전쟁연습을 강행하는것으로 우리 공화국에 공공연히 도전해나서고있다.

미국과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의 군사적광란은 조선반도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무분별한 망동이며 북남대결을 더욱 부추기고 대화에 빗장을 지르려는 매우 온당치 못한 처사이다.

우리는 반공화국침략세력에 의해 조선반도에 조성되고있는 엄중한 사태를 절대로 수수방관할수 없다.

선의에는 선의로 대하고 힘에는 힘으로 대응하는것이 우리 공화국의 불변의 립장이며 원칙이다. 우리는 대화에도 전쟁에도 다같이 준비되여있다. 우리의 선군총대는 침략자들에게 무자비하다.

미국은 우리의 원칙적립장을 오판하지 말고 범죄적인 전쟁소동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김 종 손

제네바군축회의 전원회의에서 우리 나라 대표가 연설

【평양 3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2월 24일 제네바군축회의 전원회의에서 우리 나라 대표가 연설하였다.

그는 오늘 인류앞에는 핵군비경쟁을 방지하고 핵군축을 추진하며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해야 할 절박한 과제가 나서고있다고 하면서 국제공동체는 핵참화를 가져올수 있는 모든 요인들을 종국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핵군축은 세계평화와 안전문제이기 전에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초미의 문제이라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시종일관 지구상에서 핵무기의 전면적이고도 완전한 철폐를 지지하고있다.

이런 견지에서 우리 대표단은 핵무기의 개발, 시험, 생산, 저장, 이전, 사용 및 위협의 금지와 핵무기의 완전파괴를 핵보유국과 비핵국가들의 의무로 규제한 포괄적인 국제협약을 하루빨리 체결하는 문제가 급선무로 나선다고 간주한다.

1996년 7월 국제사법재판소의 자문의견은 모든 국가들에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적통제하에서의 핵군축을 위한 협상에 성실하게 나서야 할 의무가 있다는데 대해 밝혔다.

핵보유국들은 핵무기의 완전철폐를 목표로 하여 당면하게는 핵무기의 질적개선과 개발을 중지하며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을 축감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것이다.

핵무기저장고의 완전파괴와 핵군축과정을 불가역적인 과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엄격하고 국제적인 검증체계가 반드시 동반되여야 한다.

2000년 핵무기전파방지조약리행검토대회를 계기로 핵보유국들이 처음으로 핵무기철폐를 공약하였지만 아직까지 그 어떤 실질적인 조치들이 취해진것이 없으며 현존 제도적장치만으로는 진정한 핵군축의 실현을 담보할수 없다.

이로부터 핵군축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쌍무적협상과 함께 다무적협상도 동시에 추진하는것이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핵보유국들은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는것을 무조건 공약하며 이와 관련한 국제적인 협약을 작성하기 위한 협상에 속히 응해나와야 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숭고한 책임감을 가지고 핵군축을 실현하며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념원대로 핵무기없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다.

남부꾸릴렬도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주장을 배격

로씨야외무성이 2월 24일 남부꾸릴렬도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주장을 단호히 배격하였다.

최근 일본의 내각관방장관과 외상이 국회에서 로씨야가 법적근거도 없이 남부꾸릴렬도를 점유하고있다고 발언한데 대해 외무성은 자기 나라가 꾸릴렬도와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권리를 가지고있다고 반박하였다.

꾸릴렬도에 대한 로씨야의 주권은 전적으로 합법적이며 의심할 여지도 없다고 밝히고 외무성은 그것은 국제법적으로 고착되고 유엔헌장에 의해 합법화된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에 기초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파키스탄인들에 대한 미군의 계속되는 살인만행

아프가니스탄주둔 미군이 《반테로》의 간판밑에 파키스탄인들에 대한 살인만행을 계속 감행하고있다.

2월 24일 미군은 북부와지리스탄지역에 무인기를 리용한 미싸일공격을 가하여 6명의 무고한 주민을 살해하였다.

미군의 이러한 만행은 현지 주민들의 커다란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본사기자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성명을

여러 나라 통신, 신문, 방송이 보도

【평양 3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성명 《침략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에 단호한 대응으로 맞설것이다》를 여러 나라 통신, 신문, 방송이 보도하였다.

2월 27일 중국의 신화통신은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가 위임에 따라 발표한 성명에서 강력한 군사적조치로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에 대응할것을 강조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성명은 미국과 남조선의 합동군사연습은 위험천만한 군사적책동이며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려는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과 남조선이 이번 합동군사연습의 목적은 조선의 《급변사태》에 대처하고 《국지전계획》의 현실성을 검토하며 조선의 핵 및 미싸일제거에 있다고 선포한 사실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성명은 조선이 이에 각각 다음과 같은 조치들로 대응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강점과 남조선의 반민족적인 통치체제를 전면붕괴시키기 위한 총공세에 진입할것이다.

《국지전계획》에 전면전으로 대응할것이다.

미국과 남조선의 핵공갈에는 조선식의 핵억제력으로, 미싸일위협에는 조선식의 미싸일타격전으로 맞서나갈것이다.

중국의 《신화매일전신》, 《해방일보》, 《베이징일보》, 로씨야의 이따르—따쓰통신, 리아 노보스찌통신, 꾸바의 쁘렌싸 라띠나통신, 미국의 AP통신, VOA방송, 프랑스의 AFP통신, 일본의 지지통신, NHK방송도 2월 27일과 28일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성명을 보도하였다.

근로대중의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는 미국

자본주의세계에서 절대다수 근로대중의 권리는 여지없이 짓밟히고있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표본》이라고 하는 미국사회의 현실이 잘 말해주고있다.

근로대중의 권리가운데서 가장 중요한것의 하나가 바로 로동의 권리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지난해말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방황하는 근로자들이 1500여만명에 달하였으며 올해 1월에 매주 새로 등록된 실업자수는 평균 42만 9000명이상을 기록하였다.

미국정부가 실업위기를 해소할 대책을 세운다 어쩐다 하면서 부산을 피우고있지만 나라의 실업률은 9%계선에서 떨어지지 않고있다. 이러한 실태를 두고 2월 24일 미국집권자까지도 지금 자기 나라가 직면하고있는 가장 큰 도전은 높은 실업률이라고 실토하였다.

실업위기가 날로 격화되는것은 미국지배계층이 침체상태에 빠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출로를 더 많은 일자리를 축감하는데서 찾고있는것과 관련된다.

2월 17일 뉴욕시장은 예산적자를 줄인다는 구실밑에 교육부문에서의 해고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적으로 6000여명의 교원들이 일자리에서 밀려나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에 놓이였다.

이보다 앞서 2월 15일 로스안젤스시에서는 근로자 5000여명을 해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수천명의 군중이 시내거리들에 떨쳐나와 시위를 벌렸다. 그들은 근로자들의 한심한 생활형편에는 아랑곳없이 일자리를 대폭 줄이려는 당국의 부당한 처사를 규탄하면서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전국도처에서 일자리축감계획들이 련이어 발표되여 어수선한 사회적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최근 위스콘신주당국이 근로대중의 권리를 놓고 흥정하는 법안을 새로 채택하려 하고있어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2월 19일에만도 약 7만명이 항의집회에 참가하여 자기들의 권리를 무참히 유린하게 될 그릇된 법안을 당장 철회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미국에서 근로자들이 로동에 대한 공정한 보수를 받을 권리와 안전하고 위생적인 로동조건을 보장받을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있다는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최근년간 계속되는 수입감소로 전국의 임금로동자가정 3세대중 거의 1세대가 빈궁선이하에서 생활난을 겪고있으며 빈번한 로동재해로 늘어나는 인명피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 응답자비률이 85%에 달하였다는 사실이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미국만이 아니라 다른 자본주의나라들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수자와 사실자료들은 반인민적이고 반동적인 사회제도가 존재하는 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근로대중은 무권리와 천대속에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재정위기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 금융위기의 후과로 재정형편이 계속 악화되고있다.

2월 25일 주당국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현재 주의 예산적자가 250억US$에 달하고있다고 밝혔다.

리윤손실

미국의 주택저당업체인 패니메이회사가 2월 24일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지난해 4.4분기에 기업체에서 입은 손실액이 21억US$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오스트랄리아의 강철업체인 블루스코우프회사에서는 지난해 하반년에 5580만US$어치의 손실이 초래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생태환경개선조치

중국 강소성에서 계획에 따라 올해 도시들에 오수처리시설들을 많이 건설하게 된다.

공사들이 완공되면 도시들의 하루오수처리능력은 100만㎥이상 더 늘어나며 생태환경이 보다 개선되게 된다.

에이즈방지노력

인디아에서 에이즈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한 고리로 에이즈왁찐개발을 다그치고있다.

2월 23일 이 나라 의학연구협회는 지난해 12월 에이즈왁찐에 대한 1단계 림상실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고 밝혔다. 현재 이 나라에서 에이즈비루스감염자수는 약 300만명에 달한다.

실업률 감소

브라질에서 올해 1월에 실업률이 6.1%로 감소되였다.

이것은 2003년이래 가장 낮은것이라고 한다.

2월 24일 이 나라 통계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살림집건설 추진

칠레에서 지진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살림집건설을 다그치고있다. 2월 23일 정부는 2012년까지 살림집건설을 마무리하여 림시거처지에서 살고있는 주민들의 생활을 안착시킬것을 계획하고 여기에 많은 자금을 돌리고있다고 밝혔다. 이 나라에서는 지난해에 있은 강한 지진으로 80만명의 주민들이 집을 잃었다.

【조선중앙통신】

타이에서 태양 및 풍력 에네르기 리용

또다시 표면화되는 중미모순

최근 중국의 인민페환률문제를 둘러싸고 중미모순이 또다시 표면화되고있다.

지난 2월 10일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소속 국회의원 100여명이 중국인민페의 평가인상과 관련한 새로운 대중국제재법안을 발표하였다. 《공정한 무역을 위한 통화개혁법안》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미상무성이 자국의 통상법에 기초하여 중국의 통화약세정책에 대응조치를 취하는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다. 이와 관련한 법안은 지난해에 미국회 하원에서 가결된적이 있지만 상원에서 부결되였었다.

외신들은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대중국제재법안을 발표한데는 인민페시세를 조정하도록 중국에 압력을 가하려는데 목적을 두고있다고 평하고있다.

알려진것처럼 지난 시기 인민페환률문제를 둘러싸고 중미사이에 마찰이 심화되였었다.

지난해 9월 미국은 인민페의 가치가 인위적으로 낮게 평가되여있어 중국의 제조업체들이 《부당한 리득》을 보고있다고 중국을 비난하였었다. 당시 미국의 정객들은 인민페의 평가인하가 자국경제에 손해를 주고 실업률을 높이는 주요요인의 하나로 되고있다느니, 중국을 《환률조작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느니, 미국이 행동할때가 왔다느니 뭐니 하면서 중국을 걸고들었다. 이 문제로 하여 쌍방사이에 마찰이 격화되였었다.

미국의 주장은 중국인민페가 최고 40%까지 평가인하되여있으며 중국상품들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고있어 중국이 무역에서 《부당한 리득》을 보고있다는것이다. 이번에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발표한 대중국제재법안이 국회 하원에서 통과되는 경우 미국회사들이 자국제품들과 경쟁을 벌리는 중국산 수입품들에 한해 관세를 적용할수 있게 된다.

얼마전 미재무성 차관은 중국인민페의 가치평가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에 계속 압박을 가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중국의 경제개혁의 계속적인 진전을 위해 통화개혁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은 미국의 주장을 반박하여나서고있다.

얼마전 중국인민은행 부총재는 베이징에서 열린 한 연구보고회에서 중국은 자기 식의 환률체계를 그대로 유지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는 자국환률체계는 사회주의시장경제체계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며 지금까지 자기 나라는 이러한 환률체계를 고수하여왔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현재 미국딸라에 대한 인민페환률은 적합한 수준에 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자국의 환률체계는 국내외경제상태와 적절한 시기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개혁해나갈것이라고 하였다.

중국의 경제전문가들속에서는 인민페환률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강경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울려나오고있다.

미국은 자기대로 인민페환률문제에서 중국이 양보하지 않는 경우 강도높은 대중국제재를 실시하겠다고 하고있다.

미국은 중국을 《환률조작국》으로 몰아 대중국제재를 합법화하려 하고있다.

만일 실지로 일이 그렇게 된다면 사태가 매우 복잡하게 번져질수 있다.

최근 미국은 중국과 450억US$에 달하는 무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것이 실현되면 미국은 큰 리득을 보게 된다. 하지만 미국은 그에 성차하지 않고있다. 중국에 계속 압력을 가하여 더 큰 양보를 받아냄으로써 저들의 리속을 채우자는것이 미국의 타산이다. 그러자면 중국의 인민페환률문제를 물고늘어지는수밖에 없다. 이로부터 미국은 중국과 긴밀한 경제무역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보다 큰것을 노리고 인민페환률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있는것이다.

이를 놓고 전문가들은 《미국경제가 갈수록 취약해지고 중국은 더욱 강력해지고있다.》는 위구심이 미국인들을 조급하게 만들고있다고 평하고있다.

중국이 국제무역에서 인민페에 의한 결제를 시험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전통적인 미국딸라결제지역들에서 중국의 인민페가 무역결제통화로 쓰이게 되였다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것이 미국의 부아를 돋구었는지도 모른다. 지난해 8월 미상무성이 자국에 수출된 5억US$이상의 중국산 알루미니움제품에 부당한 보조금이 지불되였다고 하면서 거기에 138%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것도 그와 관련된다.

지금도 미국은 같은 수법을 쓰려 하고있다.

최근 미국의 한 무역위원회는 중국이 자국에 수출하는 마그네시움제품가격이 국내시장가격이나 생산원가보다 낮다고 하면서 그에 한해 세금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이른바 반투매관세를 적용한다는 소리이다. 미국은 2005년 4월부터 5년을 기한으로 자국에 들어오는 중국산 마그네시움제품에 대해 49.66%로부터 141.49%까지의 세금을 부과하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마그네시움제품들에 반투매관세가 계속 적용되게 된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를 부당한것으로 간주하고있는 중국은 대미공세를 가할 자세를 취하고있다. 지난해 중국은 같은 리유로 미국산 닭고기의 일부 품목에 대해 105%이상의 반투매관세를 부과한바 있다.

여론들은 여러 분야에서의 리해관계의 대립으로 하여 앞으로 중미모순이 심화될것으로 전망하고있다.

본사기자 조 택 범

애국주의교양의 중요한 계기

얼마전 로씨야에서 조국수호자의 날을 뜻깊게 기념하였다. 2월 23일은 로씨야에서 조국수호자의 날이다. 원래 붉은군대창건절로 되여온 2월 23일은 1946년부터 쏘련군대 및 해군절로 바뀌였다가 쏘련이 붕괴되면서 조국수호자의 날로 되였다. 조국수호자의 날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전세대들이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세운 영웅적위훈을 똑똑히 알고 애국심을 키우도록 하며 군인들에게 조국수호자로서의 영예감을 간직하도록 하는 계기로 되고있다.

로씨야에서는 해마다 조국수호자의 날을 맞으며 군인들과 로병들,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참가했거나 현재 참가하고있는 사람들의 가정들에 경의를 표시하는것을 전통화하고있다. 로씨야대통령 메드베제브는 올해 조국수호자의 날을 맞이하는 로씨야사람들을 축하하면서 《로씨야에는 평화가 보장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강해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하였다. 명절을 앞두고 군인묘들과 기념비들을 깨끗이 정리하고 조국전쟁로병들과 함께 모스크바교외의 전적지들을 방문하는 사업 등 다양한 정치, 문화행사들이 진행되였다.

명절을 맞으며 로씨야대통령과 수상, 국방상, 전쟁로병들이 전통에 따라 크레믈리성벽결에 위치하고있는 무명전사묘에 화환을 진정하였다.

모스크바를 비롯한 로씨야의 여러 도시들에서는 열병식, 경축시위, 축하모임, 음악회, 체육경기 등이 진행되였다. 로씨야련방무력의 각 부대들에서도 여러가지 행사들이 진행되였다. 텔레비존들에서는 전쟁주제의 영화와 편집물들이 방영되고 곳곳에서는 위대한 조국전쟁시기에 불리워진 노래들이 울려나왔다. 명절을 계기로 울라지보스또크, 뜨베리, 찌흐빈시들에 군인영광의 도시칭호를 수여하는 행사가 진행되였다.

대통령이 크레믈리에서 3개 도시의 수반들에게 군인영광의 도시칭호수여에 관한 상장을 전달하였다. 이 도시들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군대와 인민이 용감성과 강의성,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한것으로 하여 군인영광의 도시칭호를 수여받게 되였다. 이로써 로씨야에서 군인영광의 도시칭호를 수여받은 도시수는 30개에 달하게 되였다.

모스크바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과 행정중심지들에서는 당일 저녁에 희생된 조국수호자들을 추모하고 생존해있는 조국수호자들에게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수천문의 포들이 축포를 쏘았다. 로씨야국민들은 조국수호자의 날을 기념하면서 조국수호자들의 투쟁정신과 애국주의, 위훈을 되새겨보며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였다. 이번 조국수호자의 날은 로씨야에서 애국주의교양의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모스크바발 본사특파기자 최 학 철

ㄱ-110411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부 321-4328. 편 집 위 원 회